

韓國海洋大學 學生의 寄宿舍 生活實態에
관한 調査分析 (I)
(乘船學科 學生을 中心으로)
河 海 東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tudents'
Dormitory Life in Korea Maritime University (I)
(With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Nautical Education Departments)

Hae Dong-Ha

〈目 次〉

- | | |
|-----------------|--------------|
| I. 緒 論 | 3. 調査 節次 |
| 1. 調査 目的 | 1) 調査 對象 |
| 2. 調査 內容 | 2) 調査 資料 |
| 1) 個人的, 家庭的 背景 | 3) 調査 期間 |
| 2) 對人關係 및 關聯 態度 | 4) 資料 處理 |
| 3) 生活關係 및 關聯 態度 | II. 分析 및 考察 |
| 4) 食生活 關係 | III. 結論 및 集約 |
| 5) 生活의 當面 問題 | 參考文獻 |
| 6) 生活의 滿足 程度 | |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tudent's dormitory life and their attitude to the dormitory life with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nautical education departments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Subject for this study was 543 students and the results from the data and its analysis were as follows :

1. About individual and home backgrounds

- (1) Brought-up regions : smaller than town (49.8 %)
larger than medium-sized city (49.2 %)
- Religions : Christianity (19.9 %), Buddhism (12.7 %)
Catholicism (7.4 %)
- Hobbies : Sports (21.9 %), travelling (17.1 %)
- (2) Insufficient monthly pocket money (67.6 %) Smoker (67.0 %)
Alcoholic drinker (89.5 %)
- (3) Parents alive (74.2 %)
Parents' occupations ; agriculture or fisheries (49.7 %)
Peaceful family atmosphere (56.1 %)
High parents' expectation (85.4 %)

2. About personal relations

- (1) Senior and junior relations : Comparatively harmonious (31.9 %)
Reasons for not being in harmony : unsociability (21.9 %),
rank order (17.3 %), passivity (17.1 %)
- (2) Favorable friend types : good humanity (60.2 %)
Consultees on the personal affairs : school fellow (31.3 %) parents (20.3 %)
- (3) Students under dating (40.0 %)
Major criteria of dating : character (36.1 %), consideration (27.1 %)

3. About general living conditions

- (1) University-applying motives : guarantee on employment (25.0 %),
national expense (20.1 %) Contentment to a present life (34.5 %)
Causes of discontent : rigorous time control (29.3 %),
lack of free personal time (21.2 %)
- (2) Personal concerns : scholastic achievement (32.0 %)
Well-kept public morality (52.9 %)
- (3) The term students want to embark : until life stability (44.9 %)
Daily routines before breakfast : newspaper reading (39.8 %),
studying (14.5 %)

4. About eating habits; Eating anything offered (80.3%)

Eating habit after entrance (changed) Skipping of meals (70.7%)

Reasons for meal skipping : lack of time (39.8%), lack of appetite (23.9%)

I. 緒 論

1. 調查 目的

乘船學科 教育은 韓國의 海運界가 요구하는 우수한 海技士를 養成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 目的의 實現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目標가 達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船舶과 그 運航管理에 관한 廣範 多樣한 理論的 構造를 理解하며, 乘船實習 課程을 통하여 理論과 實際를 有機的으로 結合하는 실천력과 응용력을 기른다.

② 寄宿舍를 중심으로 하는 規律된 학내생활 훈련을 통하여 海技士 職業에 대한 適應力과 職業精神을 기르며 海技士로서 갖추어야 할 技能과 知性 및 品性을 기르는 데 力點을 둔다.

그러므로 乘船學科 學生이 寄宿舍를 中心으로 한 生活訓練을 하는 것은 實習船 乘船 課程과 더불어 중요한 教育課程이다. 寄宿舍生活을 하는 동안 學生은 學習活動은 물론, 共同生活을 통하여 個人의 態도와 行動이 乘船生活에 適合하도록 變容되게 하며 또, 心身을 단련하고 指導性을 體得하게 한다.¹⁾

本大學 寄宿舍는 行政的으로는 學生課 傘下 機構로서 운영되고 있고, 學生 生活指導를 위하여는 學生生活指導教授와 指導官들이 있다. 또 學生들로 構成된 기구로서는 各급 제대장 및 제대참모 24名으로 된 聯隊幹部들이 있다. 現在 6名의 生活指導教授는 講議外에 學生生活指導를 專擔하면서, 4名의 指導官과 같이 業務도 分擔하여 遂行하며 또, 各 學年에도 소속이 되어 多角的인 지도가 可能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生活指導 擔當者들은 時間的 不足 때문에, 幹部들에 의한 意見과 접촉으로 指導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學生 個人과 人間的, 人格的인 만남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결과 生活指導教

1) 鄭世讓 外 3人, 韓國海洋大學 乘船學科 教育의 發展課題, 한국해양대학 해운연구소 논문집 제 3집, 1985, p. 4.

授와 學生間에 거리감과 疎外感이 있게 되고 또 平素에 學生들이 생각하고 있는 問題나 態度를 外面的으로만 보아 오거나 充分히 파악하지 못한 채 엄격한 規律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生活指導教授와 學生 사이에는 公式性和 非情性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學生을 규정에 의해 처벌하기에 앞서 學生의 生活 實態 및 態度를 充分히 파악하고 犯則 學生의 發生을 사전에 방지하는 豫防 指向的인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寄宿舍 運營에 대한 發展課題와 學生의 自我概念 및 協同性 등에 관하여는 先行된 研究가 있지만 學生의 生活 實態 및 態度에 관한 基礎 研究는 체계적으로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本 調査는 寄宿舍를 中心으로 한 學生生活 實態 및 그 態度를 調査 分析하여 生活指導에 參考資料를 마련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2. 調査 內容

本 調査의 目的 및 趣旨와 관련하여 學生들에 대한 外的인 反應을 調査 分析하고자 하는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個人的, 家庭的 背景

① 주성장지 ② 종교 ③ 취미 ④ 한 달간 용돈과 액수 및 관련문제 ⑤ 흡연량과 음주량 ⑥ 신체이상 유무와 시설 ⑦ 취침시간 ⑧ 부모 생존 여부 ⑨ 보호자 직업 ⑩ 부모와 인생에 대한 가치관 차이 ⑪ 부모 기대 ⑫ 가정 경제사정 ⑬ 가정 분위기

2) 對人關係 및 關聯 態度

① 선후배 관계 ② 선후배 관계가 곤란한 이유 및 관련 태도 ③ 사귀는 친구유형 및 관련 태도 ④ 신상문제 상담자 및 관련 태도 ⑤ 이성교제 경험과 기준점 및 학업에 미친 영향

3) 生活關係 및 關聯 態度

① 분학 지원 동기 및 관련 태도 ② 생활의 만족 정도 및 관련 태도 ③ 생활의 불만 원인 및 관련 태도 ④ 공과규정 엄격성 및 관련 태도 ⑥ 공중도덕 준수 및 관련 태도 ⑦ 計劃하고 있는 乘船 期間 ⑧ 조식 전에 하는 일 ⑨ 상복을 하지 않을 때 하는 일 ⑩ 가장 즐거운 때 ⑪ 써클 활동 상태

4) 食生活 關係

① 식사에 대한 습관 ② 결식의 경우와 시기 및 이유 ③ 간식을 먹는 이유

5) 生活의 當面問題

6) 生活의 滿足程度

3. 調査 方法

1) 調査 對象

調査 對象者는 韓國海洋大學 乘船學科 575名을 無作爲 標集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23名) 불성실한 응답자(9名) 32名을 제외한 543名(94.4%)으로 하였고 그 現況은 <表1-1>과 같다.

<表1-1>

학과 \ 학년	1 년	2 년	3 년	4 년	계
항 해	52	106	37	88	283
기 관	108	53	79	52	292
소 계	160	159	116	140	575
무응답(불성실)	11 (4)	5 (2)	3 (1)	4 (2)	32
총 계	145 (26.7)	152 (28.0)	112 (20.6)	134 (24.7)	543 (100.0)

2) 調査 資料

調査에 使用된 資料는 寄宿舍 學生生活 指導를 통해 對面한 問題와 學生들의 態度를 파악하기 위해 製作하였고, 他 一般大學의 寄宿舍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구를 참조하였고, 學生生活 指導教授의 意見을 參考로 하여 補完하였다.

3) 調査 節次

- ① 設問製作 및 補完: 85年 7月~9月
- ② 設問調査: 85年 10月 25日~10月 30日, 溫習時間 利用.
- ③ 資料分析 및 整理: 85年 11月~12月

4) 實態 및 態度를 學年別 그리고 全體의으로 百分率로 分析하였고 生活實態는 각 문항과 학년에 대한 頻度の 比率分布 關係를 밝히기 위해

$$\chi^2 \text{檢證} \left(\chi^2 = \sum_i \sum_j \frac{(O_{ij} - E_{ij})^2}{\Sigma_{ij}} \right)$$

으로 진산처리 하였다. 또, 實態와 관련되는 態度를 評價하기 위해 ① 전혀 아니다의 응답에 1點 ② 아니다에 2點 ③ 그저 그렇다에 3點 ④ 그렇다에 4點 ⑤ 매우 그렇다에 5點으로 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算出하였으며, 이 評價에 대한 解析을 위해 肯定的인 反應(매우 그렇다, 그렇다)과 否定的인 反應(전혀 아니다, 아니다)으로 區分하였다.

II. 分析 및 考察

1. 個人的 家庭的 背景

1) 主 成長地

〈表 1-2〉

문 항	1 년	2 년	3 년	3 년	4 년
	N (P)	N (P)	N (P)	N (P)	N (P)
① 농·어촌 면소 재지 이하	56(38.6)	68(44.7)	60(53.6)	41(30.6)	225(41.4)
② 읍 소 재 지	13(9.0)	14(9.2)	8(7.1)	16(11.9)	51(9.4)
③ 중 소 도 시 (기타시소재지)	30(20.7)	31(20.4)	10(8.9)	23(17.2)	94(17.3)
④ 대 도 시 (서, 부, 대, 인, 광)	46(31.7)	39(25.7)	34(30.4)	54(40.3)	173(31.9)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21.27 \quad df = 9 \quad P < .05$$

[df : 自由度 (Degree of Freedom) P: 有意度水準 (Significance level)]

〈表 1-2〉와 같이 學生들의 主 成長地는 농촌·어촌 및 면소재지가 41.4%, 대도시가 31.9%, 중소도시가 17.3%, 읍소재지가 9.4%로써 읍소재 이하가 49.8% 중소도시 이상이 49.2%로 각각 반씩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년별 分布比率이 有意的(P < .05)이었다. 따라서 1,4학년은 중소도시 이상의 出身이, 2,3학년은 읍소재지 이하의 出身이 많았다.

77년 本學 乘船學科인 경우²⁾ 농·어촌이 49.7%, 중소도시 이상이 50.2%로 現在

2) 한국해양대학, 학생지도연구소, 本大學 在學生 實態에 관한 基礎 資料, 학생지도 연구 제 2 집, 1977, p. 91.

와 비슷하였으며, 83년 P大學·新入生 男學生인 경우³⁾ 유소제지 이하가 26.9%, 중소도시 이상이 72.9%로 대도시 出身이 많았다.

2) 宗 教

<表 1-3>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P)	N(P)	N(P)	N(P)
① 기 독 교		28(19.3)	32(21.1)	15(13.4)	33(24.6)	108(19.9)
② 천 주 교		17(11.7)	7(4.6)	6(5.4)	10(7.5)	40(7.4)
③ 불 교		19(13.1)	20(13.2)	3(2.7)	28(20.9)	70(12.7)
④ 원 불 교		1(0.7)	1(0.7)	0	0	2(0.4)
⑤ 천 도 교		1(0.7)	0	0	0	1(0.2)
⑥ 없 음		77(53.1)	90(59.2)	88(78.6)	63(47.0)	318(58.6)
⑦ 기 타		2(1.4)	2(1.3)	0	0	4(0.7)
계		145(100.0)	152(100.1)	112(100.1)	134(100.0)	543(99.9)

$\chi^2 = 48.85$ $df = 18$ $P < .001$

<表 1-3>과 같이 宗教가 없는 학생이 58.6%, 宗教가 있는 학생이 40.6%로 宗教가 없는 학생이 많으며, 기독교가 19.9%로 가장 많고, 불교가 12.7%, 천주교가 7.4%였다. 分布有意差에서 意義($P < .001$) 있으므로 천주교는 1학년에서, 불교는 4학년에 서 많았다. 특히 3학년은 宗教가 없는 학생이 78.6%나 되는데 이는 實習後의 생활이 아직 安定이 되지 않았거나 宗教에 대해서는 關心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F大學의 경우⁴⁾ 기독교 20.3%, 불교 16.4%, 천주교 5.0%, 종교 없음이 48.6%여서 本學보다 宗教를 가진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3) 趣 味

<表 1-4>와 같이 趣味는 다양하지만 運動이 21.9%로 가장 많고, 여행이 17.1%, 독서가 16.8%, 문예(음악, 미술, 서예)가 12.0%로써 身體活動이 요구되는 방면에 趣味를 가지고 있으며,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4학년은 운동(28.4%)에, 3학년은 독서(25.0%)에 취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3학년도 釜山大 新入生의 實態, 性格 및 價値觀에 대한 조사 연구 研究報 제 19집, 1983, p.104.

4) 이 현우 外 2人, 新入生 實態 調査, 학생지도연구 제 4집, 부산수산대학 학생생활지도연구소, 1985, p.6.

〈表1-4〉

항 목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P)	N(P)	N(P)	N(P)	N(P)
① 독 서		30 (20.7)	24 (15.8)	28 (25.0)	9 (6.7)	91 (16.8)
② 문 예 (음악, 미술, 서예)		23 (15.9)	14 (9.2)	9 (8.0)	19 (14.2)	65 (12.0)
③ 오 락		16 (11.0)	19 (12.5)	7 (6.3)	10 (7.5)	52 (9.6)
④ 운 동		31 (21.4)	28 (18.4)	22 (19.6)	38 (28.4)	119 (21.8)
⑤ 여 행		25 (17.2)	23 (15.1)	23 (20.5)	22 (16.4)	93 (17.1)
⑥ 연구·실험		4 (2.8)	8 (5.3)	2 (1.8)	4 (3.0)	18 (3.3)
⑦ 기 술 (원예, 공작, 목공예)		7 (4.8)	5 (3.3)	0	17 (12.7)	29 (5.3)
⑧ 등 산		2 (1.4)	7 (4.6)	5 (4.5)	7 (5.2)	21 (3.9)
⑨ 바 독		7 (4.8)	15 (9.9)	16 (14.3)	3 (2.2)	41 (7.6)
⑩ 기 타		0	9 (5.9)	0	5 (3.7)	14 (2.6)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82.16 \quad df = 27 \quad P < .001$$

〈表1-5〉

문 항	태 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P)	N(P)	N(P)	N(P)	N(P)
생활 속에서 취미를 살릴 수 있다.	긍 정	매우그렇다	3 (2.1)	3 (2.0)	2 (1.8)	13 (9.7)	21 (3.9)
		그 령 다	44 (30.3)	43 (28.3)	48 (42.9)	32 (23.9)	167 (30.8)
	그저그렇다		54 (37.2)	46 (30.3)	34 (30.4)	41 (30.6)	175 (32.2)
	부 정	아 니 다	40 (27.6)	45 (29.6)	21 (18.8)	37 (27.6)	143 (26.3)
매우아니다		4 (2.8)	15 (9.9)	7 (6.3)	11 (8.2)	37 (6.8)	
M=2.99 SD=0.99		계	145(100.0)	152(100.0)	112(100.2)	134(100.0)	543(100.0)

또 趣味實態와 관련하여 “生活 속에서 趣味를 살릴 수 있다”에 대한 態度를 보면 〈表 1-5〉와 같이 그저그렇다 (2.99 ± 0.99 點)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3학년은 肯定的인 反應(44.7%)을 보이는 반면, 2학년은 다소 否定的인 反應(30.3%)을 보였다.

4) 한 달간 용돈과 액수 및 관련 문제

〈表1-6〉과 같이 한 달의 용돈은 부족할 때도 있다가 49.7%, 매우 부족하다가 17.9

%로서 대부분이 不足하다고 하였으며,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2, 4학년은 일정하게 조절한다고 했으나 1, 3학년은 부족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表1-6>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일정하게 조절한다	34 (23.4)	50 (32.9)	22 (19.6)	35 (26.1)	141 (26.0)
② 부족할 때도 있다	83 (57.2)	70 (46.1)	62 (55.4)	55 (41.0)	270 (49.7)
③ 매우 부족하다	23 (15.9)	28 (18.4)	18 (16.1)	28 (20.9)	97 (17.9)
④ 여유있는 편이다	5 (3.4)	4 (2.6)	10 (8.9)	16 (11.9)	35 (6.4)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 (99.9)	543(100.0)

$\chi^2 = 23.74$ $df = 9$ $P < .001$

<表1-7>

금액 학년	2 만 이하	2만~ 2만9천	3만~ 4만9천	5만~ 6만9천	7만~ 8만9천	9만~ 10만9천	11만~ 12만9천	15만~ 16만9천	평 균
	1년	14	42	57	28	4			
2년	11	12	57	56	11	4	1	4만9천	
3년	8	7	34	48	12	2	1	5만2천	
4년		5	31	70	20	7		5만5천	
계	33 (6.1)	66 (12.2)	179 (33.0)	202 (37.2)	47 (8.7)	13 (2.4)	2 (0.3)	1 (0.1)	543 (100.0)

<表1-8>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태도		N (P)	N (P)	N (P)	N (P)	N (P)
각종 모임의 회비 지출이 많다.	공	매우그렇다	25 (17.2)	34 (22.4)	14 (12.5)	31 (23.1)	104 (19.2)
	정	그 령 다	67 (46.2)	77 (50.7)	65 (58.0)	54 (40.3)	263 (48.4)
		그저그렇다	45 (31.0)	34 (22.4)	30 (26.8)	41 (30.6)	150 (27.6)
	부	아 니 다	8 (5.5)	3 (2.0)	3 (2.7)	6 (4.5)	20 (3.7)
	정	매우아니다	0	4 (2.6)	0	2 (1.5)	6 (1.1)
$M = 3.81$ $SD = 1.15$		계	145 (99.9)	152(100.1)	112(100.0)	134(100.0)	543(100.0)

또 한 달간의 용돈의 액수를 보면 <表1-7>과 같이 1학년이 四萬원 정도, 2학년이 五萬원 정도, 3학년이 五萬貳仟원 정도, 4학년이 五萬五仟원 정도여서 고학년일수록 용돈의 액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용돈의 用途는 많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各種 모임에서 회비 지출이 많다”는데 대한 態度를 보면 <表1-8>과 같이 대부분이 肯定的인 反應(3.81±1.15點)으로 支出이 많다고 하였으며 특히 2,3학년(70.5%~73.1%)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종 회비 외에 高學年들은 上陸時에 많이 쓴다고 하였다.

5) 吸煙量과 飲酒量

<表1-9>

문항 \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1갑 이하	66 (45.5)	79 (52.0)	68 (60.7)	51 (38.1)	264 (48.6)
② 1 갑	10 (6.9)	14 (9.2)	28 (25.0)	33 (24.6)	85 (15.7)
③ 1.5 갑	0	0	1 (0.9)	5 (3.7)	6 (1.1)
④ 2갑 이상	1 (0.7)	0	2 (1.8)	7 (5.2)	10 (1.8)
⑤ 피우지 않음	68 (46.9)	59 (38.8)	13 (11.6)	38 (28.4)	178 (32.8)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81.84$ $df = 12$ $P < .001$

<表1-10>

문항 \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1병 이하	46 (31.7)	42 (27.6)	36 (32.1)	30 (22.4)	154 (28.4)
② 1 병	59 (40.7)	54 (35.5)	49 (43.8)	53 (39.6)	215 (39.6)
③ 2 병	21 (14.5)	33 (21.7)	16 (14.3)	20 (14.9)	90 (16.6)
④ 3병 이상	4 (2.8)	4 (2.6)	4 (3.6)	15 (11.2)	27 (5.0)
⑤ 마시지 않음	15 (10.3)	19 (12.5)	7 (6.3)	16 (11.9)	57 (10.4)
계	145(100.0)	152 (99.9)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24.15$ $df = 12$ $P < .05$

<表1-9>와 같이 學生들의 흡煙자를 보면 67.0%가 吸煙을 하고 있는 반면, 피우지 않는 學生도 32.8%나 된다. 하루 吸煙량은 1갑 이하가 48.6%이며, 1갑에서 1.5갑

까지가 16.8%나 된다. 團體生活에서 흡연은 습관과 기호로 보아지며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高學年일수록 흡연자가 많으며 특히 3학년에서 흡연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1-10〉과 같이 음주에 있어서는 89.5%가 음주를 할 줄 알며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은 10.5% 밖에 되지 않았다. 음주량은 2홉 소주를 기준으로 할 때 1병 또는 1병 이하가 68.0%이며 2병 이상 마실 수 있는 학생도 21.6%나 되고 있으며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3, 4학년이 음주를 많이 하며 특히 3학년은 흡연자수와 같이 음주자수도 많았다.

寄宿舍내에 많은 學生들이 음주를 할 줄 알며 이러한 現象은 흡연자수와 함께 寄宿舍生活의 스트레스와도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

6) 身體異狀 有無와 施設

〈表 1-11〉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눈	6 (4.1)	5 (3.3)	4 (3.6)	26 (19.4)	41 (7.6)
② 치 아	16 (11.0)	18 (11.8)	5 (4.5)	14 (10.4)	53 (9.8)
③ 폐	1 (0.7)	0	2 (1.8)	2 (1.5)	5 (0.9)
④ 위 장	9 (6.2)	7 (4.6)	9 (8.0)	13 (9.7)	38 (7.0)
⑤ 호흡계통(기관지)	2 (1.4)	7 (4.6)	0	6 (4.5)	15 (2.8)
⑥ 간 염	7 (4.8)	11 (7.2)	5 (4.5)	11 (8.2)	34 (6.3)
⑦ 신 경	0	3 (2.0)	2 (1.8)	2 (1.5)	7 (1.3)
⑧ 관 절	10 (6.9)	9 (5.9)	6 (5.4)	10 (7.5)	35 (6.4)
⑨ 두 통	3 (2.1)	0	6 (5.4)	0	9 (1.7)
⑩ 디 스크	12 (8.3)	15 (9.9)	11 (9.8)	3 (2.2)	41 (7.6)
⑪ 건 강 함	79 (54.5)	74 (48.7)	61 (54.5)	47 (35.1)	261 (48.1)
⑫ 기 타	0	3 (2.0)	1 (0.9)	0	4 (0.7)
계	145(100.0)	152(100.0)	112(100.2)	134(100.0)	543(100.0)

$\chi^2 = 89.14$ $df = 33$ $P < .001$

〈表 1-11〉과 같이 現在 身體에 異狀이 있는 학생은 51.0%이며, 健康하다는 응답은 48.1%로서 신체에 異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部位는 다양하지만 치아가 9.8%이며 디스크, 눈이 각각 7.6% 위장이 7.0% 그리고 관절·간염 등의 순서였다. 이러한 응답은 個人 스스로의 自覺症勢에 대한 診斷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과는 다소 差異가 있다고 하겠으나, 치아 외에 1, 2, 3학년에 디스크가 많으며 4학년은

<表 1-12>

분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태 도		N (P)	N (P)	N (P)	N (P)	N (P)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다.	긍	매우그렇다	6 (4.1)	8 (5.3)	0	4 (3.0)	18 (3.3)	
	정	그 령 다	10 (6.9)	13 (8.6)	13 (11.6)	27 (20.1)	63 (11.6)	
	그저그렇다		32 (22.1)	24 (15.8)	39 (34.8)	29 (21.6)	124 (22.8)	
	부	아 니 다	82 (56.6)	74 (48.7)	44 (39.3)	58 (43.3)	258 (47.5)	
		정	매우아니다	15 (10.3)	33 (21.7)	16 (14.3)	16 (11.9)	80 (14.7)
M = 2.41 SD = 1.15		계	145(100.0)	152(100.1)	112(100.0)	134 (99.9)	543 (99.9)	

눈에 이상이 많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問題로서 “健康增進을 위한 施設이 充分하다”는데 대한 反應은 <表 1-12>에서와 같이 否定的인 反應(2.41 ± 1.15 點)을 보여 시설 부족을 지적하였고, 특히 1, 2 학년에서 더욱 그러하다(67.0%~70.0%)고 하였다. 따라서 寄宿舍內에 건강증진을 위한 施設 具備가 더욱 要求되고 있으며, 身體的으로 異狀이 많다는 것은 寄宿舍의 環境條件과 健康에 대한 無關心도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7) 平素 就寢 時間

<表 1-13>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순검후 바로				3 (2.1)	3 (2.0)	0	7 (5.2)	13 (2.4)
② 11시 이전				1 (0.7)	4 (2.6)	2 (1.8)	15 (11.2)	22 (4.1)
③ 11시 30분 전후				8 (5.5)	18 (11.8)	29 (25.9)	20 (14.9)	75 (13.8)
④ 12시 전후				77 (53.1)	63 (41.4)	40 (35.7)	48 (35.8)	228 (42.0)
⑤ 12시 30분 전후				29 (20.0)	44 (28.9)	20 (17.9)	23 (17.2)	116 (21.4)
⑥ 1시 이후				22 (15.2)	12 (7.9)	7 (6.3)	17 (12.7)	58 (10.6)
⑦ 불규칙하다				5 (3.4)	8 (5.3)	14 (12.5)	4 (3.0)	31 (5.7)
계				145(100.0)	152 (99.9)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62.07$ $df = 15$ $P < .001$

<表 1-13>과 같이 平素 잠자는 時間을 보면 12時 前後가 42.0%, 12時 30분 前後

가 21.4%로 가장 많고 1時 이후에 就寢하는 경우도 10.7%나 된다. 分布有意度에서와 같이 12時 以後에 1,2學年이 약 75.0~85.0%, 3,4學年이 60.0~65.0%나 되고 있다.

8) 父母의 生存 與否

<表1-14>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부모 생존	115 (79.3)	124 (81.6)	90 (80.4)	74 (55.2)	403 (74.2)
② 편 부	4 (2.8)	7 (4.6)	10 (8.9)	4 (3.0)	25 (4.6)
③ 편 모	22 (15.2)	14 (9.2)	12 (10.7)	48 (35.8)	96 (17.7)
④ 부모 사망	4 (2.8)	5 (3.3)	0	6 (4.5)	15 (2.8)
⑤ 무 응답	0	2 (1.3)	0	2 (1.5)	4 (0.7)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58.08$ $df = 12$ $P < .001$

<表1-14>에서와 같이 父母生存이 74.2%, 偏母가 17.7%, 偏父가 4.6%이며 父母가 없는 학생도 2.8%나 된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4학년은 偏母가 35.8%나 되며 父母死亡인 학생도 4.5%나 된다. 77년 本學의 경우²⁾ 父母生存 84.0%, 偏母 12.6%, 偏父 1.8%, 父母死亡 1.6%로써 現在가 過去보다 家族 缺損이 더 있는 家庭이라 하겠으며, 84年 F大學의 경우⁴⁾ 父母生存 82.7%, 偏母 12.8%, 偏父 1.6%로써 本學의 77년 實態와 비슷하였다.

9) 保護者의 職業

<表1-15>와 같이 保護者의 職業은 농업·수산 및 해운업이 49.7%, 상업이 14.2%, 공업·광업·건설업이 8.1%, 회사원이 7.9%였고, 無職인 경우도 5.9%나 되었다. 보호자의 職業이 1차 産業에 從事하는 者가 반수이며 無職도 5.9%나 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成長過程과 經濟的 狀態를 평가해 볼 수 있으며, 意識 흐름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77년 本學의 경우²⁾를 보면 농업 24.8%, 상업 18.1%, 회사원 12.0%, 어업이 2.9%였고, 無職도 16.4% 되어 過去와 비슷한 實態이나, 無職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고, P大學의 경우³⁾ 소규모 상·공업이 19.4%, 농·수산업이 16.5%, 은행·회사원이 10.6%이며, 無職도 12.6%로써 상·공업이 많았고, F大學의 경우⁴⁾ 농업·수산업이 21.8% 상·공업이 19.6%로 本學과 비슷하였다.

<表1-15>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농림·수산(해운)	76 (52.4)	67 (44.1)	67 (59.8)	60 (44.8)	270 (49.7)
② 공·광·건설업	19 (13.1)	9 (5.9)	3 (2.7)	13 (9.7)	44 (8.1)
③ 상 업	23 (15.9)	28 (18.4)	14 (12.5)	12 (9.0)	77 (14.2)
④ 금융·회사원	13 (9.0)	11 (7.2)	3 (2.7)	16 (11.9)	43 (7.8)
⑤ 공 무 원	3 (2.1)	6 (3.9)	9 (8.0)	0	18 (3.3)
⑥ 교 육 자	4 (2.8)	4 (2.6)	2 (1.8)	0	10 (1.8)
⑦ 정 치·법 른	0	0	0	3 (2.2)	3 (0.6)
⑧ 의·약 업	0	0	1 (0.9)	3 (2.2)	4 (0.7)
⑨ 언 론 인	0	0	0	3 (2.2)	3 (0.6)
⑩ 종 교 인	0	2 (1.3)	1 (0.9)	0	3 (0.6)
⑪ 군 인	1 (0.7)	3 (2.0)	0	2 (1.5)	6 (1.1)
⑫ 사 업	2 (1.4)	6 (3.9)	5 (4.5)	2 (1.5)	15 (2.8)
⑬ 무 직	0	13 (8.6)	4 (3.6)	15 (11.2)	32 (5.9)
⑭ 기 타	4 (2.8)	3 (2.0)	3 (2.7)	5 (3.7)	15 (2.8)
계	145(100.2)	152 (99.9)	112(100.1)	134 (99.9)	543(100.0)

$\chi^2 = 97.57$ $df = 39$ $P < .001$

10) 父母와 人生에 대한 價値觀 差異

<表1-16>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심 하 다	10 (6.9)	11 (7.2)	10 (8.9)	13 (9.7)	44 (8.1)
② 다 소 있 다	74 (51.0)	75 (49.3)	45 (40.2)	44 (32.8)	238 (43.8)
③ 보 통	41 (28.3)	44 (28.9)	45 (40.2)	47 (35.1)	177 (32.6)
④ 거 의 없 다	18 (12.4)	22 (14.5)	11 (9.8)	21 (15.7)	72 (13.3)
⑤ 전 혀 없 다	2 (1.4)	0	1 (0.9)	9 (6.7)	12 (2.2)
계	145(100.0)	152 (99.9)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30.24$ $df = 12$ $P < .01$

<表1-16>과 같이 父母와 人生에 대한 價値觀 差異에서 심하다가 8.1% 다소 있다

가 43.8%로써 父母와 가치관에서 다소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에서 더 있음을 알 수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가치관에서 差異가 적어 家族과 適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既成世代와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나 本學 학생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F大學인 경우⁴⁾ 약간 있다 70.7%, 매우 심하다 6.9% 거의 없다가 21.6%로서 本學보다 심한 편이었다.

또, 1981년에 4個大學에 대하여 調査한 父母와의 價値觀 差異를 보면⁵⁾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약 11.0%~18.0%이고, 그 외 많은 學生들이 父母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11) 父母의 期待

<表 1-17>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매우 높다	72 (49.7)	74 (48.7)	50 (44.6)	31 (23.1)	227 (41.8)
② 높 다 다	62 (42.8)	71 (46.7)	45 (40.2)	59 (44.0)	237 (43.6)
③ 보 통	8 (5.5)	6 (3.9)	13 (11.6)	22 (16.4)	49 (9.0)
④ 별로 기대하지 않는것 같다	2 (1.3)	0	2 (1.8)	17 (12.7)	21 (3.9)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것 같다	0	1 (0.7)	2 (1.8)	3 (2.2)	6 (1.1)
⑥ 관심 없음	1 (0.7)	0	0	2 (1.5)	3 (0.6)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 (99.9)	543(100.0)

$\chi^2 = 75.13 \quad df = 15 \quad P < .001$

<表 1-17>과 같이 父母의 期待는 매우 높다가 41.8%, 높다가 43.6%로서 父母의 기대가 높은 편이며, 반면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5.0%나 되고 있다. 分布有意差에서나 같이 1.2학년 일수록 父母의 期待가 더 높았다.

한 가정에서 父母의 기대는 各個人의 未來에 대한 理想을 決定하는 중대한 要因이 되지 만 父母의 盲目的인 期待가 학생 自身에게 부담이 되게 해서 는 안될 것이며, 학생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苦悶이 장기간 지속되기 보다는 現身分과 관계하여 均衡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다.

5) 한 종열 외 8人 : 大學 學生指導의 効率化 方案,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5권 제 1호, 1982, p. 53.

12) 家庭 經濟事情

<表1-18>과 같이 家庭의 經濟事情은 가난하거나 극빈하다가 50.7%, 보통이다가 47.3%이나, 부유하거나 매우 부유하다는 2.1% 밖에 되지 않았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이 더 어렵다(52.0%~54.0%)고 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本學 志願動機 및 父母의 職業分布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F大學의 경우⁴⁾도 다소 곤란이 38.2%, 매우 곤란이 9.1%로서 本學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또, 1981년에 서울 S.J大學에 대하여 調査한 家庭經濟水準을 보면⁵⁾ 충분한 여유가 2.5%, 여유가 36.3%, 보통 40.8%, 곤란 15.3%, 매우 곤란 4.3%로써 本學 보다는 경제 사정이 좋음을 알 수 있다.

<表1-18>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매우 부유	0	0	0	3 (2.2)	3 (0.5)
② 부 유	1 (0.7)	1 (0.7)	1 (0.9)	5 (3.7)	8 (1.5)
③ 보 통	68 (46.9)	70 (46.1)	54 (48.2)	65 (48.5)	257 (47.3)
④ 가 난	65 (44.8)	65 (42.8)	55 (49.1)	51 (38.1)	236 (43.5)
⑤ 극 빈	11 (7.6)	16 (10.5)	2 (1.8)	10 (7.5)	39 (7.2)
계	145(100.0)	152(100.1)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24.21$ $df = 12$ $P < .05$

13) 家庭 雰圍氣

<表1-19>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매우 화목	19 (13.1)	24 (15.8)	22 (19.6)	14 (10.4)	79 (14.5)
② 화 목	60 (41.4)	55 (36.2)	54 (48.2)	57 (42.5)	226 (41.6)
③ 보 통	56 (38.6)	65 (42.8)	33 (29.5)	50 (37.3)	204 (37.6)
④ 불 화 합	10 (6.9)	8 (5.3)	3 (2.7)	13 (9.7)	34 (6.3)
계	145(100.0)	152(100.1)	112(100.0)	134 (99.9)	543(100.0)

$\chi^2 = 14.45$ $df = 9$ $P > .05$

〈表 1-19〉와 같이 家庭 雰囲気은 매우 화목하다 14.5%, 화목하다 41.6%로서 和睦하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가정도 6.3%나 되었다. 分布有意差에서는 差異가 없었으며, 가정 분위기는 가정의 여러 要因과 관계가 있겠지만 本學 학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父母와 人生에 대한 價値觀이나 經濟事情 보다는 問題가 적은 즉, 和睦하다고 하였으나 不和한 家庭에 대한 觀心이 平素에 必要하다고 본다.

P 大學의 경우³⁾ 다소 화목하다 43.8% 대단히 화목하다가 18.8%이며, F 大學의 경우⁴⁾ 화목하거나 매우 화목하다가 66.9%로서 本學보다 높게 나타났다.

2. 對人關係 및 關聯 態度

1) 先後輩 關係

〈表 2-20〉

문항 \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아주 원만	11 (7.6)	42 (27.6)	9 (8.0)	20 (14.9)	82 (15.0)
② 원만	21 (14.5)	21 (13.8)	21 (18.8)	28 (20.9)	91 (16.8)
③ 보통	89 (61.4)	68 (44.7)	59 (52.7)	62 (46.3)	278 (51.2)
④ 약간 곤란	13 (9.0)	20 (13.2)	17 (15.2)	16 (11.9)	66 (12.2)
⑤ 아주 곤란	11 (7.6)	1 (0.7)	6 (5.4)	8 (6.0)	26 (4.8)
계	145(100.1)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43.10 \quad df = 12 \quad P < .001$$

〈表 2-20〉과 같이 寄宿舍內에서 先後輩 관계가 아주 원만하다가 15.1%, 원만하다가 16.8%로서 원만하다는 응답이 31.9%이며, 곤란하거나 아주 곤란하다는 응답도 17.0%나 된다. 기숙사내 선후배 관계는 기숙사 雰囲気과 크게 관계된다고 하겠으며 現 實態는 보통이거나 대체로 圓滿하다고 하겠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반면 3, 4학년은 低학년에 비해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先後輩 關係가 곤란한 理由 및 關聯 態度

〈表 2-21〉

문항 \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소극적	33 (22.8)	35 (23.0)	14 (10.4)	11 (8.2)	93 (17.1)
② 사교성 부족	31 (21.4)	25 (16.4)	26 (23.2)	37 (27.6)	119 (21.9)
③ 열등감	1 (0.7)	4 (2.6)	3 (2.7)	7 (5.2)	15 (2.8)

④ 위계질서	20 (13.8)	33 (21.7)	31 (27.7)	10 (7.5)	94 (17.3)
⑤ 접근회피	6 (4.1)	8 (5.3)	7 (6.3)	3 (2.2)	24 (4.4)
⑥ 선배는 무섭다	3 (2.1)	2 (1.3)	0	1 (0.7)	6 (1.1)
⑦ 후배가 건방지다	1 (0.7)	0	0	2 (1.5)	3 (0.6)
⑧ 곤란 없음	50 (34.5)	45 (29.6)	31 (27.7)	59 (44.0)	185 (34.1)
⑨ 무응답	0	0	0	4 (3.0)	4 (0.7)
계	145(100.1)	152 (99.9)	112(100.0)	134 (99.9)	543(100.0)

$\chi^2 = 67.20 \quad df = 24 \quad P < .001$

<表 2-21> 과 같이 先後輩 관계가 곤란한 理由로서는 사교성 부족이 21.9%, 위계질서가 17.3%, 소극적 성격이 17.1%였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학년은 소극적 성격과 사교성 부족이라 하였고, 2, 3학년은 위계질서와 사교성 부족이며, 4학년은 사교성 부족이라 하였다.

특히, 位階秩序에 대한 態度를 <表 2-22>에서 보면 寄宿舍는 生活을 통해 ‘先後輩間에 位階秩序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다(3.39±1.12點)고 하여 위계질서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1학년이 이에 대하여 肯定的인 反應(67.5%)을 보였다. 따라서, 低學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계질서나 선배가 무섭다거나, 高學年에 있을 수 있는 엄격한 권위 등의 문제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았다.

1981년에 S.C.J大學에 대하여 調査한 大學生活에서 對人關係가 困難한 理由를 보면⁵⁾ 사교성 부족과 소극성에 기인한다고 하여 本學과도 비슷하였다.

<表 2-22>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태도		N(P)	N(P)	N(P)	N(P)	N(P)
기숙사는 규칙과 위계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다	긍	매우그렇다	25 (17.2)	10 (6.6)	10 (8.9)	13 (9.7)	58 (10.7)	
	정	그렇다	73 (50.3)	61 (40.1)	61 (54.5)	51 (38.1)	246 (45.3)	
	그저그렇다		27 (18.6)	36 (23.7)	21 (18.8)	31 (23.1)	115 (21.0)	
	부	아니다	16 (11.0)	33 (21.7)	20 (17.9)	27 (20.1)	96 (17.7)	
	정	매우아니다	4 (2.8)	12 (7.9)	0	12 (9.0)	28 (5.2)	
M = 3.39 SD = 1.12		계	145 (99.9)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3) 사귀는 親舊 類型

<表 2-23>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학문적 대화	1 (0.7)	2 (1.3)	1 (0.9)	4 (3.0)	8 (1.5)
② 진실된 마음 (인간성)	98 (67.6)	88 (57.8)	71 (63.4)	70 (52.2)	327 (60.2)
③ 정서 교환	13 (9.0)	15 (9.9)	11 (9.8)	11 (8.2)	50 (9.2)
④ 씨름 동일	4 (2.8)	7 (4.6)	4 (3.6)	9 (6.7)	24 (4.4)
⑤ 동창생 (고향)	6 (4.1)	17 (11.2)	11 (9.8)	5 (3.7)	39 (7.2)
⑥ 성격 동일	16 (11.0)	21 (13.8)	6 (5.4)	29 (21.6)	72 (13.3)
⑦ 술친구	4 (2.8)	2 (1.3)	6 (5.4)	5 (3.7)	17 (3.1)
⑧ 기 타 (무응답)	3 (2.1)	0	2 (1.8)	1 (0.7)	6 (1.1)
계	145(100.1)	152(100.0)	112(100.1)	134 (99.8)	543(100.0)

$\chi^2 = 37.62 \quad df = 21 \quad P < .05$

<表 2-23>과 같이 平素에 사귀고 있는 친구 유형을 보면 진실된 마음 즉, 人間性이 좋은 친구가 60.2%로 가장 많고, 성격 동일이 13.3%나 되지만 학문적 대화(1.5%)나 정서 교환(9.2%)을 위한 친구는 적으며,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團體生活에서 대부분이 人間性을 가장 중요시하며 人間性 外서 4學年은 性格이 같은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人間性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으면서 ‘속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다’는 데 대한 태도를 보면 <表 2-24>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그저 그렇다거나 아니라는 否定的인 反應(2.88 ± 0.91 點)을 보였으나 4學年은 다소 肯定的인 反應(35.1%)으로 切親한 친구가 많다고 하였다.

<表 2-24>

문항	학 년					
	태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속을 터놓고 사귀는 친구	긍 매우그렇다	5 (3.4)	3 (2.0)	1 (0.7)	7 (5.2)	16 (2.9)
	정 그 령 다	36 (24.8)	27 (17.8)	7 (6.3)	40 (29.9)	110 (20.3)
가 많다	그저그렇다	58 (40.0)	68 (44.7)	65 (58.0)	52 (38.8)	243 (44.8)
	부 아 니 다	32 (22.1)	46 (30.3)	35 (31.3)	26 (19.4)	139 (25.6)
	정 매우아니다	14 (9.7)	8 (5.3)	4 (3.6)	9 (6.7)	35 (6.4)
M = 2.88 SD = 0.91	계	145(100.0)	152(100.1)	112 (99.9)	134(100.0)	543(100.0)

4) 身上問題 相談對象 및 關聯 態度

<表 2-25>와 같이 平素 生活에서 身上問題 相談 對象은 동창생이 31.7%, 부모·친

척이 20.3%, 룸메이트가 19.5%였으며 그외 혼자 해결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경우(7.0%)도 많았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동창생 외에 1, 2학년은 선배와 룸메이트였고 3, 4학년은 부모·친척이 많았다. 分擔指導教授와 生活指導研究所에서는 거의 하지 않으며 學生生活指導教授와는 약간(4.1%) 상담을 한다고 했으며 4학년이 11.2%로 많았다.

또 이의 實態와 관련하여 첫째, '교수와의 대화 기회가 많은 편이다'에 대한 태도는 <表2-26>와 같이 거의가 否定的 反應(1.85 ± 1.44點)을 보였으며 특히 1, 2, 3학년은 거의 대화가 없다고 하였다. 둘째, '룸메이트와 協同關係는 잘 이루어진다'에 대한 태도는 <表2-27>과 같이 대체로 잘 된다는 肯定的인 反應(3.16 ± 0.82點)을 보였고 1, 3학년은 잘 되지 않았으나 4학년은 잘 된다(41.8%)고 하였다.

이상에서 연장자와의 相談이 41.9%나 되는 가운데 선배가 15.8%, 教授와는 5.8% 밖

<表2-25>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부모·친척	26 (17.9)	24 (15.8)	22 (19.6)	38 (28.4)	110 (20.3)
② 룸메이트	34 (23.4)	30 (19.7)	19 (17.0)	23 (17.2)	106 (19.5)
③ 선배	34 (23.4)	31 (20.4)	14 (12.5)	7 (5.2)	86 (15.8)
④ 생활지도교수(관)	4 (2.8)	3 (2.0)	0	15 (11.2)	22 (4.1)
⑤ 생활지도연구소	0	1 (0.7)	0	2 (1.5)	3 (0.6)
⑥ 분담 지도 교수	2 (1.4)	4 (2.6)	0	0	6 (1.0)
⑦ 동창생	37 (25.5)	49 (2.2)	44 (39.3)	42 (31.3)	172 (31.3)
⑧ 기타	8 (5.5)	10 (6.6)	13 (11.6)	7 (5.2)	38 (7.0)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67.31 \quad df = 21 \quad P < .001$

<表2-26>

문항	태도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교수와의 대화 가 많은 편이다	긍정	매우그렇다	2 (1.4)	0	0	7 (5.2)	9 (1.7)
	정		그렇다	5 (3.4)	5 (3.3)	5 (4.5)	12 (9.0)
	부정	그저그렇다	7 (4.8)	8 (5.3)	68 (60.7)	27 (20.1)	47 (8.7)
		아니다	60 (41.4)	77 (50.7)	39 (34.8)	60 (44.8)	265 (48.8)
	매우아니다	71 (49.0)	62 (40.8)	0	28 (20.9)	200 (36.8)	
M = 1.85 SD = 1.44	계	145(100.0)	152(100.1)	112(100.0)	134(100.0)	543(100.0)	

〈表 2-27〉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태도		N(P)	N(P)	N(P)	N(P)	N(P)
룸메이트와 협동 관계가 잘 이루어진 다	긍정	매우그렇다	12 (8.3)	20 (13.2)	12 (10.7)	17 (12.7)	61 (11.2)
		그렇다	26 (17.9)	23 (15.1)	17 (15.2)	39 (29.1)	105 (19.3)
	그저그렇다		75 (51.7)	83 (54.6)	54 (48.2)	55 (41.0)	267 (49.2)
	부정	아니다	28 (19.3)	17 (11.2)	21 (18.8)	15 (11.2)	81 (14.9)
		매우아니다	4 (2.8)	9 (5.9)	8 (7.1)	8 (6.0)	29 (5.3)
M = 3.16 SD = 0.82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 (99.9)

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서 學生들이 동창생 및 룸메이트와 의논하면서 문제 해결의 단편성과 침체를 갖게 하기 보다는 教授와 相談이 보다 더 活性化 되도록 해야 하겠다.

5) 異性 交際의 經驗과 基準點 및 學業에 미친 영향

〈表 2-28〉과 같이 異性交際 혹은 戀愛 經驗이 있는 학생은 70.2%나 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현재도 交際中이라는 학생이 40.0%나 되고 있으나,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응답도 29.4%나 되었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현재 교제 중인 경우는 4학년이 44.8%, 1학년이 41.4%로 많았고 관심이 없다는 반응은 2학년과 또 4학년에서 많았다.

1979年~1981年까지 6個大學에서 調査한 異性交際 有無를 보면⁵⁾ 약 50% 정도의 大學生들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으며 그 理由로는 異性理解와 對話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S教大인 경우⁶⁾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에 26.1%, 현재도 교제 중이다에 33.3%, 교제한 경험이 없다에 40.6%로, 本學에서는 女大生보다 經驗도 많았으며 交際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異性交際時 基準點은 〈表 2-29〉와 같이 성격이 36.1%로 가장 많고, 이해심이 27.1%, 애정이 18.2%로써 人間的인 점에 관심을 두었고, 용모·결혼·학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성격이외에도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2, 3학년은 애정에, 4학년은 용모와 결혼에 기준(10.4%)을 두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친 영향은 〈表 2-30〉과 같이 매우 도움을 주었다가 6.1%, 도움을 주고 있다가 22.3%,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학업에 지장을 준다가 21.6%로서 이성교제가 대학생활을 통하여 학업에 다소 도움이 되거나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3, 4학년은 부분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6) 趙順玉: 서울 教大 寄宿舍生의 生活實態 調査 研究, 학생지도연구 제 11집, 서울교육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1984, p. 91.

<表 2-28>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60 (41.4)	57 (37.5)	40 (35.7)	60 (44.8)	217 (40.0)
②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41 (28.3)	42 (27.6)	44 (39.3)	37 (27.6)	164 (30.2)
③ 전혀 없었다.	27 (18.6)	27 (17.8)	20 (17.9)	14 (10.4)	88 (16.2)
④ 관심 없다.	17 (11.7)	26 (17.1)	6 (5.4)	23 (17.2)	72 (13.2)
⑤ 무응답	0	0	2 (1.8)	0	2 (0.4)
계	145(100.0)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25.60$ $df = 12$ $P < .05$

<表 2-29>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성격	52 (35.9)	48 (31.6)	41 (36.6)	55 (41.0)	196 (36.1)
② 이해	43 (29.7)	40 (26.3)	30 (26.8)	34 (25.4)	147 (27.1)
③ 용모	12 (8.3)	14 (9.2)	4 (3.6)	14 (10.4)	44 (8.1)
④ 결혼	4 (2.8)	7 (4.6)	5 (4.5)	14 (10.4)	30 (5.5)
⑤ 애정	25 (17.2)	36 (23.7)	27 (24.1)	11 (8.2)	99 (18.2)
⑥ 학력	8 (5.5)	5 (3.3)	5 (4.5)	2 (1.5)	20 (3.7)
⑦ 무응답	1 (0.7)	2 (1.3)	0	4 (3.0)	7 (1.3)
계	145(100.1)	152(100.0)	112(100.1)	134 (99.9)	543(100.0)

$\chi^2 = 34.86$ $df = 18$ $P < .01$

<表 2-30>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매우 도움을 주었다.	10 (6.9)	5 (3.3)	6 (5.4)	12 (9.0)	33 (6.0)
② 도움을 주고 있다.	35 (24.1)	32 (21.1)	32 (28.6)	22 (16.4)	121 (22.3)
③ 그저 그렇다.	75 (51.7)	75 (49.3)	33 (29.5)	57 (42.5)	240 (44.2)
④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14 (9.7)	23 (15.1)	19 (17.0)	21 (15.7)	77 (14.2)
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3 (2.1)	8 (5.3)	15 (13.4)	14 (10.4)	40 (7.4)

⑥단지 스트레스해소에 불과하다.	8 (5.5)	9 (5.9)	7 (6.3)	8 (6.0)	32 (5.9)
계	145(100.0)	152(100.0)	112(100.2)	134(100.0)	543(100.0)

$\chi^2 = 33.52 \quad df = 15 \quad P < .01$

3. 生活關係 및 關聯 態度

1) 本學 志願 動機 및 關聯態度

〈表3-31〉에서와 같이 本學 志願 動機는 취업 보장이 25.0%로 가장 높으며, 등록금 저렴, 즉 국비 때문에 20.1%, 우연한 기회가 19.5%로써 취업 보장과 국비 때문이라고 하였다. 설문의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本學의 지원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었고 해운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1.7%이므로 약 20% 학생들의 지원 동기가 消

〈表 3-31〉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등록금 저렴 (국비)	26 (17.9)	24 (15.8)	23 (20.5)	36 (26.9)	109 (20.1)
② 취업 보장	51 (35.2)	39 (25.7)	27 (24.1)	19 (14.2)	136 (25.0)
③ 승진 생활에 대한 동경	12 (8.3)	19 (12.5)	15 (13.4)	23 (17.2)	69 (12.7)
④ 외국 여행	9 (6.2)	13 (8.6)	10 (8.9)	8 (6.0)	40 (7.4)
⑤ 해운계 발전에 기여	2 (1.4)	3 (2.0)	2 (1.8)	2 (1.5)	9 (1.7)
⑥ 부모·선배의 권유	14 (9.7)	19 (12.5)	15 (13.4)	21 (15.7)	69 (12.7)
⑦ 우연한 기회	28 (19.3)	35 (23.0)	20 (17.9)	23 (17.2)	106 (19.5)
⑧ 기 타	3 (2.1)	0	0	2 (1.5)	5 (0.9)
계	145(100.0)	152(100.1)	112(100.0)	134(100.2)	543(100.0)

$\chi^2 = 31.50 \quad df = 21 \quad P > .05$

〈表 3-32〉

문 항	태 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한국 해양대 학생이란 사 실에 긍지를 느낀다.	긍	매우그렇다	31 (21.4)	24 (15.8)	21 (18.8)	44 (32.8)	120 (22.1)
	정		78 (53.8)	66 (43.4)	68 (60.7)	32 (23.9)	244 (44.9)
		그저그렇다	28 (19.3)	46 (30.3)	23 (20.5)	31 (23.1)	128 (23.6)
	부	아 니 다	5 (3.4)	12 (7.9)	0	10 (7.5)	27 (5.0)
	정	매우아니다	3 (2.1)	4 (2.6)	0	17 (12.7)	24 (4.4)
M = 3.75 SD = 1.25	계	145(100.0)	152(100.1)	112(100.1)	134(100.0)	543(100.0)	

〈表 3-33〉

분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상선사관 후보생의 본분과 임무를 잘 알고 있다.	긍정	매우그렇다	7 (4.8)	12 (7.9)	6 (5.4)	28 (20.9)	53 (9.8)	
		그렇다	70 (48.3)	79 (52.0)	82 (73.2)	65 (48.5)	296 (54.5)	
	그저그렇다		48 (33.1)	48 (31.6)	21 (18.8)	25 (18.7)	142 (26.2)	
	부정	아니다	20 (13.8)	10 (6.6)	3 (2.7)	11 (8.2)	44 (8.1)	
		매우아니다	0	3 (2.0)	0	5 (3.7)	8 (1.5)	
M = 3.64 SD = 1.04		계	145(100.0)	152(100.1)	112(100.1)	134(100.0)	543(100.0)	

極的임을 볼 수 있었다.

海大의 志願을 몇 가지 큰 動機에 의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現在의 態度를 보면, 첫째, '해양대학생이란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에 대한 태도는 〈表 3-32〉와 같이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 (3.75 ± 1.25 點)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상선사관 후보생으로서 본분과 임무를 알고 있다'에 대한 태도도 〈表 3-33〉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 (3.64 ± 1.04 點)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3학년은 높은 反應 (78.6%)을 보이는 반면에 1, 2학년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海洋大學에 대하여 긍지가 높으며 商船士官 候補生의 임무는 잘 알고 있지만 本學 志願 動機가 消極的임을 볼 때 學校生活와 乘船生活의 適應問題와도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積極的인 志願을 위해 학교의 弘報를 더 強化해야 겠다고 생각된다.

P大學의 大學 志願 動機가³⁾ 이상실현이 33.9%, 적성이 33.2%, 실력이 맞아서 14.6% 취업 전망이 8.0% 있었고, F大學인 경우⁴⁾ 취업 전망인 43.8% 학문적 興味와 적성 36.6%로써 취업과 적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1972年~1981年까지 8個大學에서 調査된 專攻學科의 선택 동기를 보면⁵⁾ 趣味와 素質에 맞기 때문이고, 그 다음이 將來 職業 展望과 入學可能性이라고 하였다.

2) 生活의 滿足 程度 및 關聯 態度

〈表 3-34〉와 같이 寄宿舍 生活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34.5%이며, 그렇다가 39.4%, 불만족하다가 25.0%나 된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2학년 (30.3%), 4학년 (27.7%)은 不滿足하다고 하는 반면에 1, 3학년은 不滿이 적다고 하였다.

<表3-34>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매우 만족	3 (2.1)	8 (5.3)	0	4 (3.0)	15 (2.8)
② 만 족	48 (33.1)	42 (27.6)	38 (33.9)	44 (32.8)	172 (31.7)
③ 그 지 그 령 다	65 (44.8)	56 (36.8)	44 (39.3)	49 (36.6)	214 (39.4)
④ 불 만	24 (16.6)	38 (25.0)	19 (17.0)	25 (18.7)	106 (19.5)
⑤ 매우 불 만	5 (3.4)	8 (5.3)	5 (4.5)	12 (9.0)	30 (5.5)
⑥ 무 응 답(기타)	0	0	6 (5.4)	0	6 (1.1)
계	145(100.0)	152(100.0)	112(100.1)	134(100.1)	543(100.0)

$\chi^2 = 40.28$ $df = 15$ $P < .001$

<表3-35>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태 도	N (P)	N (P)	N (P)	N (P)	N (P)	
장차 승선생 활을 위하여 기숙사는 꼭 필요하다.	긍 매우그렇다	26 (17.9)	26 (17.1)	24 (21.4)	45 (33.6)	121 (22.3)
	정 그 령 다	56 (38.6)	47 (30.9)	58 (51.8)	36 (26.9)	197 (36.3)
	그저그렇다	32 (22.1)	41 (27.0)	17 (15.2)	23 (17.2)	113 (20.8)
	부 아 니 다	25 (17.2)	27 (17.8)	8 (7.1)	9 (6.7)	69 (12.7)
	정 매우아니다	6 (4.1)	11 (7.2)	5 (4.5)	21 (15.7)	43 (7.9)
$M = 3.52$ $SD = 1.30$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100.1)	543(100.0)

<表3-36>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태 도	N (P)	N (P)	N (P)	N (P)	N (P)	
기숙사는 계 획성있는 인 간을 만든다	긍 매우그렇다	14 (9.7)	28 (18.4)	18 (16.1)	41 (30.6)	101 (18.6)
	정 그 령 다	63 (43.4)	55 (36.2)	50 (44.6)	35 (26.1)	203 (37.4)
	그저그렇다	36 (24.8)	42 (27.6)	28 (25.0)	28 (20.9)	134 (24.7)
	부 아 니 다	26 (17.9)	24 (15.8)	13 (11.6)	26 (19.4)	89 (16.4)
	정 매우아니다	6 (4.1)	3 (2.0)	3 (2.7)	4 (3.0)	16 (2.9)
$M = 3.52$ $SD = 1.18$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表 3-37〉

문항		태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기숙사는 인	정	긍	매우그렇다	25 (17.2)	60 (39.5)	28 (25.0)	36 (26.9)	149 (27.4)
			그 령 다	90 (62.1)	71 (46.7)	71 (63.4)	53 (39.6)	285 (52.5)
간을 단순하		그저그렇다		20 (13.8)	17 (11.2)	7 (6.3)	25 (18.7)	69 (12.9)
게 만든다.	정	부	아 니 다	6 (4.1)	4 (2.6)	6 (5.4)	10 (7.4)	26 (4.7)
			매우아니다	4 (2.8)	0	0	10 (7.4)	14 (2.5)
$M = 3.97$ $SD = 1.33$		계		145(100.0)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表 3-38〉

문항		태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기숙사는 인	정	긍	매우그렇다	8 (5.5)	3 (2.0)	0	8 (6.0)	19 (3.5)
			그 령 다	19 (13.1)	12 (7.9)	9 (8.0)	22 (16.4)	62 (11.4)
간을 명량하		그저그렇다		38 (26.2)	31 (20.4)	42 (37.5)	42 (31.3)	153 (28.2)
게 만든다.	정	부	아 니 다	70 (48.3)	82 (53.9)	51 (45.5)	43 (32.1)	246 (45.3)
			매우아니다	10 (6.9)	24 (15.8)	10 (8.9)	19 (14.2)	63 (11.6)
$M = 2.50$ $SD = 1.08$		계		145(100.0)	152(100.0)	112 (99.9)	134(100.0)	543(100.0)

寄宿舍 生活에서 滿足과 不滿足에 대한 條件은 個人差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지만 生活의 滿足程度와 관련된 몇몇 態度를 보면, 첫째 ‘기숙사가 승선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데 대한 태도는 〈表 3-35〉와 같이 肯定的인 反應(3.52 ± 1.30 點)을 보였으며 특히 승선 실습을 끝낸 3학년의 反應이 가장 肯定的(73.2%)이었다. 둘째 ‘기숙사는 계획성있는 인간을 만든다’에 대한 태도도 〈表 3-36〉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3.52 ± 1.18 點)을 보였다. 셋째 ‘기숙사는 인간을 단순하게 만든다’에 대한 태도는 〈表 3-37〉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3.97 ± 1.33 點)을 보여 단순하게 만든다고 하였고, 특히 2, 3학년이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넷째 ‘기숙사는 인간을 명량하게 만든다’에 대한 태도도 〈表 3-38〉과 같이 否定的인 反應(2.50 ± 1.08 點)을 보였고 2학년이 더욱 그러하다는 태도(63.2%)를 보였다.

3) 生活의 不滿 原因 및 關聯 態度

〈表3-39〉와 같이 生活에서 不滿 原因을 보면 엄격한 시간 통제가 29.3%로 가장 많고, 개인 시간 부족이 21.2%, 식생활이 10.3%, 시설이 9.9%, 그리고 신체훈련이 9.2%였다. 시간 통제외에도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은 身體訓練에, 4학년은 시설, 식생활(23.1%) 및 生活指導教授(官) 態度(19.4%)에 못마땅 하다고 하였다.

또 위의 實態에 대한 不滿의에 이와 관련되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첫째 ‘생활에 간섭이 지나치다’는데 대한 태도는 〈表3-40〉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3.73 ± 1.29點)을 보였으나 4학년은 그렇지 않다(22.4%)고 하였고, 둘째 ‘불공평 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많다’에 대한 態度도 〈表3-41〉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3.65 ± 1.09點)을 보여 많다고 하였으며, 1, 2학년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表3-39〉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시설	13 (9.0)	8 (5.3)	2 (1.8)	31 (23.1)	54 (9.9)
② 식 생활	2 (1.4)	9 (5.9)	14 (12.5)	31 (23.1)	56 (10.3)
③ 교우 관계	6 (4.1)	8 (5.3)	2 (1.8)	6 (4.5)	22 (4.1)
④ 생활지도교수(관)태도	5 (3.4)	5 (3.3)	11 (9.8)	26 (19.4)	47 (8.7)
⑤ 개인 시간 부족	48 (33.1)	30 (19.7)	27 (24.1)	10 (7.5)	115 (21.2)
⑥ 엄격한 시간 통제	38 (26.2)	49 (32.2)	49 (43.8)	23 (17.2)	159 (29.3)
⑦ 공부 방해	13 (9.0)	9 (5.9)	2 (1.8)	2 (1.5)	26 (4.8)
⑧ 분 실	2 (1.4)	2 (1.3)	3 (2.7)	1 (0.7)	8 (1.5)
⑨ 신체 훈련	18 (12.4)	30 (19.7)	2 (1.8)	0	50 (9.2)
⑩ 기 타	0	2 (1.3)	0	4 (3.0)	6 (1.0)
계	145(100.0)	152 (99.9)	112(100.1)	134(100.0)	543(100.0)

$\chi^2=196.55$ $df=27$ $P < .001$

〈表3-40〉

문항	태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생활에 대한	긍	32 (22.1)	43 (28.3)	20 (17.9)	29 (21.6)	124 (22.8)
	매우그렇다	74 (51.0)	71 (46.7)	60 (53.6)	44 (32.8)	249 (45.8)

간섭이 지나	그저그렇다		16 (11.0)	26 (17.1)	24 (21.4)	31 (23.1)	97 (17.9)
치다.	부 정	아 니 다	8 (5.5)	11 (7.2)	8 (7.1)	20 (14.9)	47 (8.7)
		매우아니다	15 (10.3)	1 (0.7)	0	10 (7.5)	26 (4.8)
M = 3.73 SD = 1.29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 (99.9)	543(100.0)

<表3-41>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태도		N (P)	N (P)	N (P)	N (P)	N (P)
불공평 하거 나 억울한 일 들이 많다.	긍	매우그렇다	17 (11.7)	29 (19.1)	11 (9.8)	31 (23.1)	88 (16.2)	
	정	그 령 다	78 (53.8)	65 (42.8)	40 (35.7)	49 (36.6)	232 (42.7)	
		그저그렇다		42 (29.0)	45 (29.6)	53 (47.3)	32 (23.9)	172 (31.7)
	부 정	아 니 다	8 (5.5)	12 (7.9)	8 (7.1)	20 (14.9)	48 (8.8)	
		매우아니다	0	1 (0.7)	0	2 (1.5)	3 (0.6)	
M = 3.65 SD = 1.09		계		145(100.0)	152(100.1)	112 (99.9)	134(100.0)	543(100.0)

이상에서, 規律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는 생활과 시간 엄수에 대하여 1, 2 학년은 쉽게 適應을 못한데서 나타내는 反應이라 보아지나, 船舶運航 관리라는 중책을 맡기 위해서는 時間 嚴守와 규제된 생활에 대한 適應力을 서서히 기를 必要가 있다고 판단된다.

S 敎大의 不滿의 原因은⁶⁾ 개인 시간 부족 38.4% 직원 태도 24.6% 자유시간 제한 19.6%의 順으로 時間 統制에 대한 不滿은 마찬가지로였다.

4) 功過規定 嚴格性 및 關聯 態度

<表3-42>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너 무 개 방 적			25 (17.2)	34 (22.4)	11 (9.8)	44 (32.8)	114 (21.0)
②	비 교 적 엄 격			87 (60.0)	98 (64.5)	64 (57.1)	37 (27.6)	286 (52.7)
③	보 통			31 (21.4)	20 (13.2)	28 (25.0)	37 (27.6)	116 (21.4)
④	비 교 적 개 방 적			1 (0.7)	0	6 (5.4)	13 (9.7)	20 (3.7)
⑤	너 무 개 방 적			1 (0.7)	0	3 (3.6)	3 (2.2)	7 (1.2)
계				145(100.0)	152(100.1)	112 (99.9)	134 (99.9)	543(100.0)

$\chi^2 = 74.69 \quad df = 12 \quad P < .001$

〈表 3-42〉와 같이 寄宿舍內의 功過規定은 너무 엄격하다가 21.0%, 비교적 엄격하다가 52.7%로써 대부분이 엄격하다고 하였으나, 개방적이라는 5.0%에 불과하였다. 分布 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은 비교적 엄격하다고 하였으나, 3, 4학년은 보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의 功過規定과 관련되는 태도를 보면 첫째, ‘공과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태도는 〈表 3-43〉과 같이 肯定的인 反應(3.68 ± 1.08點)을 보여 공과규정이 엄격한 만큼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2, 3학년들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둘째, ‘과실이 지적되었을 때 승복하는 편이다’에 대한 태도도 〈表 3-44〉와 같이 肯定的인 反應(3.66 ± 1.12點)을 보였고, 1학년은 승복한다(75.2%)고 하였으나 4학년

〈表 3-43〉

문항		태도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기숙사 공과	긍	매우그렇다	16 (11.0)	25 (16.4)	14 (12.5)	16 (11.9)	71 (13.1)	
	정	그렇다	70 (48.3)	84 (55.3)	73 (65.2)	51 (38.1)	278 (51.2)	
규정 내용을		그저그렇다		45 (31.0)	39 (25.7)	22 (19.6)	48 (35.8)	154 (28.4)
잘 알고 있다.	부	아니다	14 (9.7)	4 (2.6)	3 (2.7)	10 (7.5)	31 (5.7)	
	정	매우아니다	0	0	0	9 (6.7)	9 (1.6)	
M = 3.68 SD = 1.08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表 3-44〉

문항		태도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과실이 지적	긍	매우그렇다	20 (13.8)	25 (16.4)	10 (8.9)	21 (15.7)	76 (14.0)	
	정	그렇다	89 (61.4)	77 (50.7)	69 (61.6)	46 (34.3)	281 (51.7)	
되었을때 승		그저그렇다		27 (18.6)	36 (23.7)	19 (17.0)	37 (27.6)	119 (21.9)
복하는 편이	부	아니다	7 (4.8)	12 (7.9)	14 (12.5)	24 (17.9)	57 (10.5)	
	정	매우아니다	2 (1.4)	2 (1.3)	0	6 (4.5)	10 (1.8)	
M = 3.66 SD = 1.12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0)	543 (99.9)

<表 3-45>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태도		N(P)	N(P)	N(P)	N(P)	N(P)
과실 처벌을 당일에 하지 말고 그 주일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면 좋다.	긍정	매우그렇다	11 (7.6)	22 (14.5)	15 (13.4)	13 (9.7)	61 (11.2)
		그렇다	52 (35.9)	44 (28.9)	38 (33.9)	22 (16.4)	156 (28.7)
	그저그렇다		45 (31.0)	56 (36.8)	30 (26.8)	43 (32.1)	174 (32.0)
	부정	아니다	33 (22.8)	20 (13.2)	23 (20.5)	28 (20.9)	104 (19.2)
매우아니다		4 (2.8)	10 (6.6)	6 (5.4)	28 (20.9)	48 (8.8)	
M = 3.14 SD = 1.13		계	145(100.1)	152(100.0)	112(100.0)	134(100.0)	543(100.0)

은 그렇지 않다(22.4%)고 하였다. 세째, '과실 처벌을 당일에 하지 말고 그 주일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다'에 대한 태도는 <表 3-45>와 같이 대체로 肯定的인 反應(3.14 ± 1.13點)이었으며 低學年들은 원하고 있으나 4학년은 否定的인 態度(41.8%)를 보였다.

이상에서 乘船生活 教育目的을 위하여 功過規定도 嚴格해야 되며 그 內容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過失者를 처리하는 節次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個人的 問題點과 關心事項 및 關聯 態度

<表 3-46>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학업 등한시			26 (17.9)	42 (27.6)	40 (35.7)	17 (12.7)	125 (23.0)
② 정의감			0	8 (5.3)	0	12 (9.0)	20 (3.7)
③ 이기적·타산적			34 (23.4)	12 (7.9)	7 (6.3)	20 (14.9)	73 (13.4)
④ 생활절제			9 (6.2)	10 (6.6)	5 (4.5)	25 (18.7)	49 (9.0)
⑤ 주인 의식(애교심)			2 (1.4)	8 (5.3)	3 (2.7)	2 (1.5)	15 (2.8)
⑥ 교양			8 (5.5)	12 (7.9)	8 (7.1)	12 (9.0)	40 (7.4)
⑦ 정서			25 (17.2)	20 (13.2)	7 (6.3)	18 (13.4)	70 (12.9)
⑧ 수동적 생활			41 (28.3)	38 (25.0)	36 (32.1)	28 (20.9)	143 (26.3)
⑨ 기타			0	2 (1.3)	6 (5.4)	0	8 (1.5)
계			145 (99.9)	152(100.1)	112(100.1)	134(100.1)	543(100.0)

$\chi^2 = 106.43$ $df = 24$ $P < .001$

<表 3-47>

문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학 력 배 양	54 (37.2)	56 (36.8)	28 (25.0)	36 (26.9)	174 (32.0)
② 교 양 향 상	30 (20.7)	22 (14.5)	11 (9.8)	8 (6.0)	71 (13.1)
③ 취 업 준 비	9 (6.2)	13 (8.6)	10 (8.9)	26 (19.4)	58 (10.7)
④ 인 격 형 성	30 (20.7)	36 (23.7)	51 (45.5)	38 (28.4)	155 (28.5)
⑤ 취 미 활 동	12 (8.3)	19 (12.5)	6 (5.4)	18 (13.4)	55 (10.1)
⑥ 건 강 증 진	7 (4.8)	6 (3.9)	6 (5.4)	6 (4.5)	25 (4.6)
⑦ 결 혼 상 대 해 결	3 (2.1)	0	0	2 (1.5)	5 (0.9)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100.1)	543(100.0)

$\chi^2 = 56.53$ $df = 18$ $P < .001$

<表 3-48>

문항	태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규칙적으로	긍	매우그렇다	4 (2.8)	1 (0.7)	0	8 (6.0)	13 (2.4)
	정		그 령 다	6 (4.1)	18 (11.8)	18 (16.1)	24 (17.9)
열심히 공부		그저그렇다	35 (24.1)	69 (45.4)	54 (48.2)	36 (26.9)	194 (35.7)
한다.	부	아 니 다	75 (51.7)	58 (38.2)	35 (31.3)	59 (44.0)	227 (41.8)
	정		매우아니다	25 (17.2)	6 (3.9)	5 (4.5)	7 (5.2)
$M = 2.59$ $SD = 0.98$	계		145 (99.9)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表 3-49>

문항	태도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자율 학습 시	긍	매우그렇다	8 (5.5)	2 (1.3)	0	8 (6.0)	18 (3.3)
	정		그 령 다	28 (19.3)	14 (9.2)	39 (34.8)	24 (17.9)
간이 충분한		그저그렇다	60 (41.4)	53 (34.9)	34 (30.4)	61 (45.5)	208 (38.3)
편이다.	부	아 니 다	44 (30.3)	70 (46.1)	32 (28.6)	34 (25.4)	180 (33.1)
	정		매우아니다	5 (3.4)	13 (8.6)	7 (6.3)	7 (5.2)
$M = 2.81$ $SD = 0.95$	계		145 (99.9)	152(100.1)	112(100.1)	134(100.0)	543 (99.9)

〈表3-46〉과 같이 生活에서 個人的으로 問題되는 點이라면 수동적 생활이 26.3%, 학업 등한시가 23.0%인 반면에, 정의감 주인의식(애교심)은 強하다고 하겠다. 수동적 생활외에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학년은 이기적·타산적(23.4%)이며, 4학년은 무절제한 생활(18.7%)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 個人的으로 수동적 생활과 학업 등한시가 問題點으로 지적되었지만, 반면에 關心을 많이 두는 點을 보면 학력배양(32.0%)과 인격형성(28.2%) 및 교양향상(13.4%)였으나, 건강증진(4.6%)에는 관심이 적다고 하겠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3學年은 人格形成(45.5%)에 4학년은 취업준비(19.4%)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었다.

위의 實態에서 平素 學生들이 학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의욕은 많으나 실지 實行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個人的으로 學力培養에 관심을 많이 둔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되는 實態를 보면, 첫째 '규칙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에 대한 태도는 〈表3-48〉과 같이 否定的反應(2.59 ± 0.98 點)을 보여, 특히 1학년은 規則的 工夫가 되지 않으나(69.0%), 4학년은 다소 肯定的인 反應(23.9%)을 보였다. 둘째 '自律學習 時間이 充分한 편이다'에 대한 태도도 〈表3-49〉와 같이 否定的인 反應(2.81 ± 0.95 點)을 보였으며 2학년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個人的으로 學力培養과 人格形成에 關心을 두고 있지만 規則的으로 공부하는 습관과 自律學習 時間은 充分한 편이 못되었다.

6) 公衆道德 遵守 및 關聯 態度

〈表3-50〉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잘 지킨다		84 (57.9)	82 (53.9)	79 (70.5)	42 (31.3)	287 (52.9)
② 보통		51 (35.2)	66 (43.4)	28 (25.0)	61 (45.5)	206 (37.9)
③ 잘 지키지 않는다		4 (2.8)	3 (2.0)	5 (4.5)	18 (13.4)	30 (5.5)
④ 무관심하다		6 (4.1)	1 (0.7)	0	13 (9.7)	20 (3.7)
계		145(100.0)	152(100.0)	112(100.0)	134 (99.9)	543(100.0)

$\chi^2 = 69.60$ $df = 9$ $P < .001$

<表 3-51>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태도		N(P)	N(P)	N(P)	N(P)	N(P)
강의실은 배우는 학생에 의해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긍정	매우그렇다	5 (3.4)	17 (11.2)	11 (9.8)	19 (14.2)	52 (9.6)	
		그렇다	49 (33.8)	48 (31.6)	53 (47.3)	42 (31.3)	192 (35.4)	
	그저그렇다		22 (15.2)	40 (26.3)	19 (17.0)	22 (16.4)	103 (19.0)	
	부정	아니다	44 (30.3)	37 (24.3)	25 (22.3)	29 (21.6)	135 (24.8)	
매우아니다		25 (17.2)	10 (6.6)	4 (3.6)	22 (16.4)	61 (11.2)		
M = 3.07 SD = 1.20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 (99.9)	543(100.0)	

<表 3-50>과 같이 寄宿舍內의 公衆道德은 잘 지킨다가 52.9%이며, 잘 지키지 않거나 관심하다가 9.2%였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 3學年은 잘 지킨다고 하였으나 4학년은 그저 그렇다(45.5%), 잘 지키지 않거나 무관심하다(23.1%)고 하였다.

또 公衆道德의 實態와 관련하여 ‘강의실은 배우는 학생에 의해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表 3-51>과 같이 그저 그렇다는 反應(3.07 ± 1.20點)을 보였고 1, 4학년들이 원하지 않는다(48.0%)고 하였다.

S教大의 경우⁶⁾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29.0%, 보통이다 65.2%, 잘 지키지 않는다 5.8%로써 本學이 公衆道德心은 더 높다고 하겠다.

7) 計劃하고 있는 乘船 期間

<表 3-52>와 같이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승선 기간을 보면 생활기반(자택, 사업자금) 안정까지가 44.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이 14.9%, 직업전환이 있을 때 까지가 13.3%로써 70.0% 이상이 職業의 專門性을 살려 계속 하겠다는 積極的인 反應을 보였으며 또 설문 문항에 모순도 있겠지만 義務期間까지(11.8%)나 結婚後 5년까지(6.1%) 하겠다고 하여 졸업 후 직업에 대한 確實性을 갖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고 하겠으며, 이는 <表 3-31>의 實態와 같이 우연한 기회 또는 國費때문에 입학한 학생들의 응답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表 3-52>

문항	학년				
	1년	2년	3년	4년	전체
	N(P)	N(P)	N(P)	N(P)	N(P)
① 의무 기간까지	9 (6.2)	16 (10.5)	7 (6.3)	32 (23.9)	64 (11.8)

② 결혼 후 5년까지	9 (6.2)	13 (8.6)	5 (4.5)	6 (4.5)	33 (6.1)
③ 생활기반(주택, 사업)안정까지	86 (59.3)	68 (44.7)	46 (41.4)	44 (32.8)	244 (44.9)
④ 능력(건강)이 있을 때까지	11 (7.6)	13 (8.6)	16 (14.3)	9 (6.7)	49 (9.0)
⑤ 직업 전환이 있을 때까지	15 (10.3)	23 (15.1)	12 (10.7)	22 (16.4)	72 (13.3)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	15 (10.3)	19 (12.5)	26 (23.2)	21 (15.7)	81 (14.9)
계	145 (99.9)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52.89 \quad df = 15 \quad P < .001$

8) 朝食前에 하는 일

<表 3-53>과 같이 定規 課業外에 起床 後부터 朝食前에 하는 일은 신문구독이 39.8%, 공부·독서가 14.5%, 운동이 15.5%였다. 신문구독 외에도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은 씨클활동, 3학년은 공부, 4학년은 운동 및 취침을 한다고 하여 學年別로 差異가 있었다.

S教大인 경우⁶⁾ 독서 41.3%, 숙제 33.3%, 운동과 기타(세면, 잠자기)가 각각 8.7%여서 다소 差異가 있었다.

<表 3-53>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공 부 · 독 서		12 (8.3)	24 (15.8)	19 (17.0)	24 (17.9)	79 (14.5)
② 운 동		21 (14.5)	16 (10.5)	13 (11.6)	34 (25.4)	84 (15.5)
③ 취 미 생 활		9 (6.2)	8 (5.3)	7 (6.3)	8 (6.0)	32 (5.9)
④ 씨 클 활 동		21 (14.5)	26 (17.1)	10 (8.9)	9 (6.7)	66 (12.2)
⑤ 신 문 구 독		62 (42.8)	61 (40.1)	56 (50.0)	37 (27.6)	216 (39.8)
⑥ 취 침		19 (13.1)	15 (9.9)	7 (6.3)	21 (15.7)	62 (11.4)
⑦ 기 타		1 (0.7)	2 (1.3)	0	1 (0.7)	4 (0.7)
계		145(100.1)	152(100.0)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40.93 \quad df = 18 \quad P < .01$

9) 週末 上陸을 하지 않을 때 하는 일

<表 3-54>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공 부 · 독 서		17 (11.7)	40 (26.3)	48 (42.9)	20 (14.9)	125 (23.0)

② 운 동	5 (3.4)	8 (5.3)	8 (7.1)	30 (22.4)	51 (9.4)
③ 씨 클 · 취 미 활 동	35 (24.1)	39 (25.7)	23 (20.5)	27 (20.1)	124 (22.8)
④ 세 탁	18 (12.4)	14 (9.2)	5 (4.5)	18 (13.4)	55 (10.1)
⑤ 취 침	66 (45.5)	42 (27.6)	26 (23.2)	33 (24.6)	167 (30.8)
⑥ 선 · 후 배 와 환 담	4 (2.8)	6 (3.9)	2 (1.8)	4 (3.0)	16 (2.9)
⑦ 기 타	0	3 (2.0)	0	2 (1.5)	5 (0.9)
계	145 (99.9)	152(100.0)	112(100.0)	134 (99.9)	543 (99.9)

$\chi^2 = 91.99$ $df = 18$ $P < .001$

<表 3-54>와 같이 週末 上陸을 하지 않을 때 주로 하는 일은 취침이 30.8%, 공부가 23.0%, 씨클·취미활동이 22.8%였다. 취침 외에도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은 씨클·취미활동이었고 3학년은 공부 4학년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 <表 3-53>의 實態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學生들이 즐겨하는 運動을 보면 테니스와 탁구 그리고 구기 운동이었는데 현재 인원수에 비해 運動 施設이 不足한 편이며, 보다 더 시설 확충이 되어 低學年들도 運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健康 增進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10) 가장 즐거운 때

<表 3-55>와 같이 가장 즐거운 때는 全體가 個人時間이 많을 때가 41.8%로 가장 많으며, 이는 <表 3-39>의 實態와 같이 生活의 不滿原因이 되는 個人時間 不足과의 반대 현상임을 알 수 있고 다음이 면회시간이 23.8%, 잠자는 시간이 14.4%였다.

<表 3-55>

문 항 \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식 사 시 간	7 (4.8)	4 (2.6)	1 (0.9)	6 (4.5)	18 (3.3)
② 선 · 후배, 동문과 대화	17 (11.7)	15 (9.9)	10 (8.9)	25 (18.7)	67 (12.3)
③ 개 인 시 간	72 (49.7)	61 (40.1)	52 (46.4)	42 (31.3)	227 (41.8)
④ 생 일 축 하	0	1 (0.7)	4 (3.6)	7 (5.2)	12 (2.2)
⑤ 잠 자 기	23 (15.9)	23 (15.1)	11 (9.8)	21 (15.7)	78 (14.4)
⑥ 면 회	24 (16.6)	44 (28.9)	34 (30.4)	27 (20.1)	129 (23.8)
⑦ 공 부 · 독 서	2 (1.4)	4 (2.6)	0	2 (1.5)	8 (1.5)
⑧ 기 타	0	0	0	4 (3.0)	4 (0.7)
계	145(100.1)	152 (99.9)	112(100.0)	134(100.0)	543(100.0)

$\chi^2 = 52.55$ $df = 21$ $P < .001$

11) 씨클活動 狀態

〈表 3-56〉

문항	학 년				
	1 년 N (P)	2 년 N (P)	3 년 N (P)	4 년 N (P)	전 체 N (P)
① 활동적	34 (23.4)	46 (30.3)	16 (14.3)	31 (23.1)	127 (23.4)
② 대체로 활동적	25 (17.2)	32 (21.1)	18 (16.1)	26 (19.4)	101 (18.6)
③ 그저 그렇다	38 (26.2)	31 (20.4)	22 (19.6)	43 (32.1)	134 (24.7)
④ 옮길 수 없다	4 (2.8)	1 (0.7)	6 (5.4)	6 (4.5)	17 (3.1)
⑤ 옮겼으면 한다	10 (6.9)	6 (3.9)	4 (3.6)	3 (2.2)	23 (4.2)
⑥ 씨클 없음	34 (23.4)	36 (23.7)	46 (41.1)	25 (18.7)	141 (26.0)
계	145 (99.9)	152(100.1)	112(100.1)	134(100.0)	543(100.0)

$$\chi^2 = 52.89 \quad df = 15 \quad P < .001$$

〈表 3-56〉과 같이 현재 가입된 씨클에 대하여 활동적이다가 23.4%, 대체로 활동적이다가 18.6%로써, 대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씨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도 26.0%나 되며 3학년에서 많았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 2학년의 活動이 많으며 (41~52.0%) 4학년은 그저 그렇다 (32.1%)고 하였다.

本學에 등록된 씨클은 63개가 있다. 어느 한 씨클 學生 個個人이 自發적으로 加入하여 폭넓은 人間關係를 涵養하고 自我開發을 實現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겠고, 씨클活動에 대한 弘報를 強化하여 많은 學生이 참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하겠다.

1975年~1977年에서 4個大學에서 調査된 씨클활동 참여도를 보면⁵⁾ 약 50.0%~66.0%였으나 1979年과 1981年의 3個大學의 조사에는 약 30.0%~40.0%의 學生들이 씨클에 참여하고 있으나 本學에서는 약 80.0%가 씨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食生活 關係

1) 食事に 對한 習慣

〈表 4-57〉과 같이 入學前과 後 食事に 對한 習慣을 보면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入學前에 49.5%에서 入學後에는 52.3%로, 특정한 음식 한두 가지만 빼고 잘 먹는다는 30.8%에서 36.6%로, 대부분 學生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먹으며 入學前에 많이 가려서 먹던 學生들도 (13.8%) 寄宿舍生活을 하면서 適應되어 가는 현상 (6.8%)도 알 수 있다. 또 특정한 음식 몇 가지만 먹는다는 응답이 入學前과 後에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수의 學生에 대하여 특수 음식에 대한 體質的 現狀이라고 보아지며 1, 4학년에서 다소 있었다. 따라서 특수 음식에 대해서는 學生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본다.

<表 4-57>

분 항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입학전	입학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N (P)	N (P)	N (P)	N (P)	N (P)	N (P)	N (P)	N (P)	N (P)	N (P)
① 가리지 않고 잘 먹음	67 (46.2)	75 (51.7)	96 (63.2)	98 (64.5)	54 (48.2)	45 (40.2)	52 (38.8)	66 (49.3)	269 (49.5)	284 (52.3)
② 특정한 음식 한두 가지만 빼고 잘 먹음	48 (33.1)	54 (37.2)	43 (28.3)	46 (30.3)	39 (34.8)	54 (48.2)	37 (27.6)	45 (33.6)	167 (30.8)	199 (36.6)
③ 많이 가려서 먹음	21 (14.5)	11 (7.6)	11 (7.2)	5 (3.3)	17 (15.2)	12 (10.7)	26 (19.4)	9 (6.7)	75 (13.8)	37 (6.8)
④ 특정한 몇 가지만 먹음	9 (6.2)	5 (3.4)	2 (1.3)	2 (1.3)	2 (1.8)	1 (0.9)	12 (9.0)	14 (10.4)	25 (4.6)	22 (4.1)
⑤ 무 응 답	0	0	0	1 (0.7)	0	0	7 (5.2)	0	7 (1.3)	1 (0.2)
계	145 (100.0)	145 (99.9)	152 (100.0)	152 (100.1)	112 (100.0)	112 (100.0)	134 (100.0)	134 (100.0)	543 (100.0)	543 (100.0)

入學前 $\chi^2 = 51.94$ df = 12 P < .001

入學後 $\chi^2 = 41.04$ df = 12 P < .001

2) 缺食의 境遇와 時期 및 理由

<表 4-58>

문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경우	① 없 다	32 (22.1)	47 (30.9)	44 (39.3)	36 (26.9)	159 (29.3)
	② 가끔 있다	105 (72.4)	99 (65.1)	61 (54.5)	66 (49.3)	329 (60.6)
	③ 잦은 편이다	10 (6.9)	6 (3.9)	7 (6.3)	32 (23.9)	55 (10.1)
계		145(100.0)	152 (99.9)	112(100.1)	134(100.1)	543(100.0)
시기	① 조 식	88 (60.7)	110 (72.4)	79 (70.5)	94 (70.1)	371 (68.3)
	② 중 식	9 (6.2)	11 (7.2)	13 (11.6)	18 (13.4)	51 (9.4)
	③ 석 식	33 (22.8)	24 (15.8)	10 (8.9)	19 (14.2)	86 (15.8)
	④ 무 응 답	15 (10.3)	7 (4.6)	10 (8.9)	3 (2.2)	35 (6.4)
계		145(100.0)	152(100.0)	112 (99.9)	134 (99.9)	543 (99.9)
이유	① 식욕이 없다	32 (22.1)	28 (18.4)	28 (25.0)	42 (31.3)	130 (23.9)
	② 개인용무로 시간이 없다	66 (45.5)	78 (51.3)	48 (42.9)	24 (17.9)	216 (39.8)
	③ 소화기 장애	4 (2.8)	8 (5.3)	18 (16.1)	7 (5.2)	37 (6.8)
	④ 싫은 음식	3 (2.1)	5 (3.3)	11 (9.8)	41 (30.6)	60 (11.0)
	⑤ 엄격한 시간 통제	32 (22.1)	19 (12.5)	3 (2.7)	16 (11.9)	70 (12.9)

⑥ 기본 나뭇	7 (4.8)	10 (6.6)	0	0	17 (3.1)
⑦ 기 타	1 (0.7)	4 (2.6)	4 (3.6)	4 (3.0)	13 (2.4)
계	145(100.0)	152(100.0)	112(100.1)	134 (99.9)	543 (99.9)

(경우) $\chi^2 = 48.12$ $df = 6$ $P < .001$

(시기) $\chi^2 = 23.94$ $df = 9$ $P < .01$

(이유) $\chi^2 = 148.0$ $df = 18$ $P < .001$

〈表4-58〉에서와 같이 식사때 缺食의 경우를 보면 가끔 있다가 59.3%, 잦은 편이다 10.1%로써 가끔 결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時期는 朝食이 68.3% 夕食이 15.8%로써 朝食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4학년이 朝食때 많은 편(26.9%)이며, 1학년은 朝食外에도 夕食도 가끔 먹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식의 이유를 보면 개인용무로 시간이 없다가 39.8%, 식욕이 없다가 23.9%, 엄격한 시간 통제가 12.9%이며, 그외 싫은 음식(11.0%)과 소화기 장애(6.8%) 때문이라고 하여 缺食의 큰 이유가 개인용무와 식욕이 없기 때문이기는 하겠으나 그외에도 이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1학년은 시간통제와 식욕 때문(22.1%)이며 4학년은 식욕(31.3%)과 싫은 음식(30.6%) 때문이라고 하였다.

3) 間食을 먹는 理由

〈表4-59〉와 같이 間食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다가 46.4%, 習慣이다가 22.1%, 영양보충이 14.9%이며, 그외 남이 먹기 때문에 3.9%, 식사를 못했기 때문이 3.5%라고 하여 거의가 간식을 하고 있었으나 高學年일수록 간식자의 수는 적었다. 배가 고프거나 영양보충 때문에 먹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남이 먹기 때문 즉, 분위기 때문이라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S 教大의 경우⁶⁾ 습관이다 38.4%, 배가 고프다가 32.6%, 주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 18.1%로서 다소 差異가 있었다.

〈表4-59〉

분 항	학 년				
	1 년	2 년	3 년	4 년	전 체
	N (P)	N (P)	N (P)	N (P)	N (P)
① 배가 고프다	83 (57.2)	68 (44.7)	49 (43.8)	52 (38.8)	252 (46.4)
② 습관이다	28 (19.3)	50 (32.9)	25 (22.3)	17 (12.7)	120 (22.1)
③ 영양 보충	13 (9.0)	18 (11.8)	21 (18.8)	29 (21.6)	81 (14.9)
④ 남이 먹기 때문	8 (5.5)	5 (3.3)	3 (2.7)	5 (3.7)	21 (3.9)
⑤ 식사를 못했기 때문	9 (6.2)	4 (2.6)	1 (0.9)	5 (3.7)	19 (3.5)
⑥ 간식을 먹지 않는다	4 (2.8)	7 (4.6)	13 (11.6)	26 (19.4)	50 (9.2)
계	145(100.0)	152 (99.9)	112(100.1)	134 (99.9)	543(100.0)

$\chi^2 = 62.07$ $df = 15$ $P < .001$

5. 生活의 當面 問題

生活의 當面 問題 程度를 評價하기 위하여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에 1點 ② 어려움이 없다는 2點 ③ 그저그렇다에 3點 ④ 다소 어려움을 받고있다는 4點 ⑤ 매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5點으로 하여 平均(M)과 표준편차(SD)를 算出하였고, 이의 解析을 위해 肯定的 反應(①+②)과 否定的 反應(④+⑤) 및 그저그렇다(③)는 反應으로 나누었으며 그 實態는 <表 5-60>과 같다.

<表 5-60>과 같이 生活에서 當面한 어려운 問題의 程度와 學年間의 反應을 보면, 家庭의 經濟的인 事情(3.44 ± 1.0點)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용돈이 부족(3.37 ± 0.90點)과 異性問題(3.18 ± 1.02點)였으며, 이 問題에 대해서는 分布有意差에서와 같이 學年間에 差異는 없으나(P>.05) 全體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또 家族問題(3.13 ± <表 5-60>

내 용	구 분	평 가 M ± SD	긍정적 (P)	그 저 그렇다 (P)	부정적 (P)	분 포 유 의 차		
						χ ²	df	P
경 제		3.44 ± 1.00	17.5	29.7	52.8	21.81	12	P > .05
건 강		2.72 ± 1.19	46.0	22.8	31.2	64.05	12	P < .01
이 성		3.18 ± 1.02	23.5	36.5	38.5	23.43	15	P > .05
성 격		3.02 ± 1.01	31.5	32.6	35.9	32.94	12	P < .01
학 업		3.11 ± 0.97	26.9	35.9	37.2	51.41	12	P < .001
가 족		3.13 ± 0.97	27.1	34.8	38.1	48.36	12	P < .001
취 업		3.06 ± 0.90	26.4	41.6	32.1	17.20	12	P > .05
교 우		2.78 ± 0.94	39.1	39.4	20.7	21.88	15	P > .05
성 적		3.02 ± 1.03	23.0	30.2	36.9	62.38	12	P < .001
종 교		2.51 ± 1.21	48.4	34.1	17.5	18.73	12	P > .05
분 실		3.07 ± 1.14	26.3	23.0	40.7	42.61	12	P < .001
용 돈		3.37 ± 0.90	14.4	38.9	46.7	16.39	12	P > .05

0.97點)는 2學年(49%)과 4學年(37%)에서, 學業問題(3.11 ± 0.97點)는 1學年(43%)과 3學年(39%)에서, 紛失問題(3.07 ± 1.14點)는 1學年(46%)과 2學年(48%)에서 각각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宗教(2.51 ± 1.21點), 健康(2.72 ± 1.19點) 그리고 交友(2.78 ± 0.94點)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大學生의 當面問題에 대하여⁵⁾ 韓東一等(1976)이 全國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調查 및 1975年~1981年까지 10個大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進路問題가 1位였으며, 특히 進路計劃에 있어서 제일 먼저 就業을 원하며 그 다음은 大學院과 海外留學을 計劃하고 있었고, 또 調查에 따라서는 經濟問題가 1位로 나타난 結果도 있었지만 대부분 大學(9個大學)에서는 經濟問題가 2位로 나타났다.

本學 學生의 當面問題인 經濟問題는 대부분의 大學과도 비슷한 실정이지만 就業問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6. 生活의 滿足 程度

生活의 滿足 程度를 評價하기 위하여 ① 매우 불만족의 응답에 1點 ② 불만족에 2點 ③ 그저그렇다에 3點 ④ 다소 만족에 4點 ⑤ 매우 만족에 5點으로 하여 平均(M)과 표준편차(SD)를 算出하였고, 이의 解析을 위해 肯定的인 反應(④+⑤)과 否定的인 反應(①+②) 및 그저그렇다(③)는 反應으로 나누었으며 그 實態는 <表6-61>과 같다.

<表6-61>과 같이 生活에서 滿足 程度와 學年間의 反應을 보면 대부분이 生活에서 不滿足이 있다고 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娛樂施設(1.89±1.43點)에 가장 불만이 있었으며, 2학년(91%)과 3학년(94%)에서 반응이 높았고, 다음이 休憩室(2.15±1.27點)로 1학년(66%)과 3학년(78%)에서, 식당 메뉴(2.19±1.24點)는 3학년(75%)

<表6-61>

구분 내용	평 가 M ± SD	긍정적 (P)	그 저 그 렇 다 (P)	부정적 (P)	분 포 유 의 차		
					χ ²	df	P
도서관장서	2.27 ± 1.20	10.8	27.3	61.9	21.05	12	P > .05
식당메뉴	2.19 ± 1.24	7.5	24.5	68.0	49.65	12	P < .001
휴게실	2.15 ± 1.27	9.4	19.0	71.6	61.60	12	P < .001
오락시설	1.89 ± 1.43	6.4	10.5	83.1	76.48	12	P < .001
체육시설	2.30 ± 1.15	9.7	26.0	64.3	22.79	12	P > .05
화장실	2.57 ± 1.05	12.7	41.8	45.5	42.51	12	P < .001
매점·후생	2.28 ± 1.14	7.0	26.5	65.2	27.11	15	P < .05
면학분위기	2.45 ± 1.07	11.8	35.5	52.7	50.62	12	P < .001
TV 시청	2.26 ± 1.21	8.3	28.2	63.5	55.38	12	P < .001
써클룸	2.69 ± 1.04	17.4	39.2	42.5	54.28	15	P < .001

사물보관	2.55 ± 1.04	13.8	38.3	47.9	38.81	12	P < .001
해운정보	2.31 ± 1.17	9.4	29.3	61.3	49.85	12	P < .001

에서, TV 視聽(2.26 ± 1.21 點)은 2 학년(76%)에서, 圖書館藏書(2.27 ± 1.20 點)는 3 학년(66%)과 4 학년(65%)에서 각각 不滿足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씨클룸(2.69 ± 1.04 點) 化粧室(2.57 ± 1.05 點) 문제는 다소 不滿足하거나 그저그렇다고 하였다.

Ⅲ. 結論 및 集約

韓國海洋大學 乘船學科 學生들의 寄宿舍 生活 實態 및 態度를 把握하여 生活指導에 參考資料를 얻기 위하여 543 名을 對象으로 調査 分析한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結論과 實態를 集約할 수 있다.

1. 個人的 家庭的 背景

1) 學生들의 主 成長地는 읍소재지 이하 농·어촌(49.8%)과 중소도시 이상(49.2%)이 각각 반씩 되어 있으며, 77년 本學 實態와도 비슷하였다.

2) 宗教實態는 없는 학생이 58.6%, 종교가 있는 학생이 40.6%며, 宗教別로는 기독교가 19.9%, 불교가 12.7%, 천주교가 7.4%였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학년에서 78.6%나 되었다.

3) 趣味는 운동(21.9%)과 여행(17.1%) 및 독서(16.8%) 順序이며, 4학년은 운동(28.4%)에 3학년은 독서(25.0%)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에서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그저그렇다'(2.99 ± 0.99 點)고 하였다.

4) 한 달간 용돈은 대부분이 不足(67.6%)하다고 하였으나, 1, 3학년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한 달간 용돈의 평균 액수는 1학년이 4萬원, 2, 3학년이 5萬원, 4학년은 6萬원 정도였으며 '학내에서 각종 모임에 대한 회비의 지출이 많다'(3.81 ± 1.15 點)고 하였으며 2, 3학년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5) 吸煙者는 67.0%나 되며 하루의 吸煙量은 1갑정도(48.6%)이며, 반면에 飲酒者는 89.5%나 되며 飲酒時 그 量은 2홉소주 1병(39.6%)이거나 그 이하(28.4%)를 마신다고 하였다. 특히 흡연자나 음주자수(량)가 高學年에서 많았다.

6) 身體에 異狀이 있는 곳은 치아(9.8%)와 눈과 디스크가 많으며 '기숙사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이 不足(2.41 ± 1.15 點)하다고 하였다.

7) 平素 就寢時間은 12時 前後가 가장 많으며 (42.0%), 12시 30분 이후도 22.1%나 되어 대부분 늦게 就寢을 하였다.

8) 父母가 生存하고 있는 경우가 74.2%, 偏母도 17.7%나 되며, 4학년의 경우 偏母가 38.5%나 되었다. 77년 本學 實態와 比較해 볼 때 현재가 가족 缺員이 있는 學生이 더 많았다.

9) 保護者의 職業은 농업·수산(해운)업이 49.7%로 가장 많고, 상업이 14.2%였다. 77년 本學 實態와 비슷하였으나 無職인 경우가 훨씬 적었다.

10) 父母와 人生에 대한 價値觀 差異는 많다(51.9%)고 하였으나, 없는 경우도 15.5%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가치관에서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11) 父母의 期待는 껍 높은 편(85.4%)이며, 低學年일수록 더욱 그러하였으며, 經濟事情은 대체로 가난(50.7%)하거나 보통(47.3%)이라고 하였으며, 1, 2學年이 경제 사정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12) 家庭 雰囲気는 화목하다(56.1%)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가정도 6.3%나 되었다.

2. 對人關係와 關聯 態度

1) 寄宿舍內에서 先後輩 관계는 대체로 원만(31.9%)하다고 하였으나, 아주 곤란하다는 반응도 17.0%나 되었고 3, 4학년이 低學年에 비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先後輩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사교성 부족이 21.9%, 위계질서가 17.3%, 소극적 성격(17.1%) 때문이었고 '기숙사는 선후배간에 위계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다'(3.39 ± 1.12點)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態度를 보였다.

3) 사귀는 친구 유형은 인간성이 좋은 친구(60.2%)와 성격이 같은 친구(13.3%)를 사귀며, 인간성외에 2, 3학년은 고향 동창생과 1, 4학년은 성격이 같은 친구를 사귀다고 하였고, 이때 '속을 터 놓는 절친한 친구가 많다'에 대해서는 否定的 反應(2.88 ± 0.91點)을 보였다.

4) 身上問題 相談對象은 동창생(31.3%)과 부모·친척(20.3%) 및 룸메이트(19.3%)였으며 '교수와의 대화가 많다'에 대해서는 否定的 反應(1.85 ± 1.44點)을 보이는 반면에 '룸메이트와 협동·의논 관계는 잘 된다'(3.16 ± 0.82點)고 하였으며 특히 4학년이 잘 된다고 하였다.

5) 異性 交際 經驗은 70.0%가 있었으나, 현재도 교제 중인 경우도 40.0%였으며, 이때 이성교제 기준은 성격(36.1%)이 무난하고 이해심(27.1%)이 많은 점에 둔다고 하였고 이성교제를 통하여 학업에 미친 영향은 그저그렇거나(44.2%) 도움을 주고 있다

(28.4%)고 하였다.

3. 生活關係와 關聯 態度

1) 本學 志願 動機는 취업보장(25.0%)과 등록금 低廉(20.1%) 때문이며, 우연한 기회에 지원(19.5%)하게 된 학생도 많아서 지원 동기가 소극적임을 볼 수 있으나 '해양대학생에 대한 금지'(3.75 ± 1.25點)와 '상선사관 후보생의 본분과 임무는 잘 알고 있다'(3.64 ± 1.04點)에 대한 태도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2) 生活의 滿足 程度는 만족하다가 34.5%이나, 불만족하다는 반응도 25.0%나 되었으며 2, 4학년이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또 이와 관련된 태도를 보면, '기숙사는 승선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3.52 ± 1.30點)고 하였고 '계획성있는 인간을 만든다'(3.52 ± 1.18點)고 하였으나 '기숙사는 인간을 명랑하게 만든다'(2.50 ± 1.08點)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든다'(3.97 ± 1.33點)는데 대한 태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3) 이때 不滿의 原因을 보면, 엄격한 시간통제(29.3%)와 개인시간 부족(21.2%)이 가장 많았고, 시간통제외에 1, 2학년은 신체훈련에 4학년은 시설·식생활(23.1%)에 불만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태도를 보면 '생활에 간섭이 지나치다'(3.73 ± 1.29點)와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많다'(3.65 ± 1.09點)에 대해서는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

4) 功過規定은 엄격하다(73.7%)고 하여 1, 2학년의 응답이 높으며, 3, 4학년은 보통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된 태도를 보면 '공과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다'(3.68 ± 1.08點)와 '과실 지적시 승복하는 편'(3.66 ± 1.12點)이라고 하였으나 '과실 처벌을 1주일에 1번씩 처리하자'는 태도는 대체로 肯定的 反應(3.14 ± 1.13點)을 보였다.

5) 個人的으로 問題되는 점은 수동적 생활(26.3%)과 학업 등한시(23.0%)라고 하였고 1학년은 이기적·타산적(23.4%)이며 4학년은 무절제한 생활(18.7%)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관심을 많이 두는 점은 학력배양(32.0%)과 인격형성(28.2%)에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태도를 보면 '규칙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2.59 ± 0.98點)와 '자유학습 시간이 충분한 편이다'(2.81 ± 0.95點)에 대해서는 否定的 反應을 보였다.

6) 寄宿舍內의 公衆道德은 대체로 잘 지킨다(52.9%)고 하였으나 4학년은 그렇지 않다(23.1%)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는 강의실은 학생에 의해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3.07 ± 1.20)는 태도는 그저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졸업 후 計劃하고 있는 乘船期間은 생활기반(주택, 사업자금)안정까지(44.9%)하거나, 직업전환이 있거나(1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한다(14.9%)고 하여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8) 起床後부터 朝食前에 하는 일은 신문구독(39.8%)과 공부(14.5%) 및 운동(15.5%)이었으며, 신문구독외에 1, 2학년은 씨클활동, 4학년은 운동과 취침이 많았다.

9) 週末 上陸을 하지 않을 때 하는 일은 취침(30.8%)과 공부(23.0%) 및 씨클·취미활동(22.8%)이었다.

10) 기숙사에서 가장 즐거운 때는 개인시간이 많을 때(41.8%)와 면회시간(23.8%) 및 잠자는 시간(14.4%)이었다.

11) 씨클활동은 대체로 열심히 활동(52.0%)하고 있으나 씨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도 26.0%나 되며 이 경우는 3학년에서 많았고 각 씨클에서 1, 2학년의 활동(41~52.0%)이 많았다.

4. 食生活 關係

1) 食事に 대한 習慣은 가리지 않고 잘 먹거나 한두 가지 빼고는 잘 먹는다(80.3%)고 하였고, 入學前 보다 入學後 환경에 의해 식성이 변해 졌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가려서 먹거나 특정한 음식만 먹는 학생도 10.9%나 되었으며 1, 4학년에서 많았다.

2) 食事때 缺食의 경우는 가끔 있는 편(70.7%)이며 그 시기는 조식(68.3%)이 가장 많고 또 석식(15.8%)이었으며, 그 이유는 개인용무로 시간이 없거나(39.8%) 식욕이 없기 때문(23.9%)이라고 하였다.

3) 間食은 대부분 학생이 먹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배가 고프거나(46.4%) 습관(22.1%)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高學年일수록 간식을 적게 하였다.

5. 生活의 當面 問題

生活에서 當面한 어려운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으며 용돈, 이성, 가족, 학업, 분실의 순서였다.

6. 生活의 滿足 程度

生活에서 滿足度는 극히 낮아 대부분이 不滿이 있다고 하였고 그 內容을 보면 오락시설에 가장 不滿이 있으며, 휴게실, 식당메뉴, TV 시청, 도서관 장서의 순서였다.

本 調査의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겠다.

첫째, 寄宿舍 生活을 통하여 趣味를 伸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健康 增進을 위한 시설구비가 必要하겠으며 學生들의 家庭經濟問題와 本學 志願動機를 實態로부터 알 수 있듯이 寄宿舍內에서는 각종 지출을 억제하고, 上陸도 제한하며, 장학금 지급폭을 확대하

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寄宿舍 生活의 不滿 原因을 수시로 관찰하고 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특히 寄宿舍를 增築하여 充分한 空間 活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施設 不足으로 인한 不滿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셋째, 先後輩 關係에서 선배는 包容的인 자세로 후배를 지도하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平素 身上 相談의 對象이 동창생과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問題 解決이 斷片的이거나 沈滯되기 쉬우므로 教授와 對談하는 기회가 더 많도록 되어야 하겠다.

네째, 寄宿舍에 대하여 좀더 教育的인 배려가 있으면 보다 더 바람직하고 肯定的인 方向으로 態度가 變容될 것으로 보아지며, 本 調査에 이어 더 檢討되어야 할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實態 및 態度 調査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研究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 結果가 生活 指導 機構에 반영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2) 不適應者(過失者)의 原因에 관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側面에서 검토되고 그 지도방안이 開發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鄭世謨 外 3人, 韓國海洋大學 乘船學科 教育의 發展課題, 한국해양대학 해운연구소 논문집, 1985.
2. 한국해양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本大學 在學生 實態에 관한 基礎資料, 학생지도연구 제 2집, 1977.
3. 부산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83學年度 釜山大 新入生의 實態, 性格 및 價値觀에 대한 調査研究, 研究報 제 19집, 1983.
4. 이 현우 外 2人, 新入生 實態調査, 학생지도 연구 제 4집, 부산수산대학 학생생활 지도 연구소, 1985.
5. 한 종열 外 8人: 大學學生指導의 効率化方案,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5권 제 1호, 1982.
6. 趙順玉, 서울교대 寄宿舍生의 生活實態調査 研究, 학생지도연구 제 11집, 서울교육대학 학생지도연구소, 1984.
7. 金惠子, 春川교대 寄宿舍生의 生活實態調査研究, 학생지도연구 제 7집, 春川교대 학생지도연구소, 1981.
8. 任寅宰, 統計方法, 서울 博英社, 1979.

46. 韓國海洋大學 學生의 寄宿舍 生活實態에 관한 調査分析(I)
9. 全閔植 외 6人, 大學生의 不適應 類型別 原因分析과 그 指導對策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研究報 제 20집, 1984.
10. 金仁子, 生活指導를 위한 新入生 現況 調査 研究報告書, 西江大學校 生活指導室, 1977.
11. 李明子, 학생문제의 인식에 대한 연구방법의 탐색,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지 Vol. 26, 1984.

